

인권하루소식

합본 11호

1998년  
7월 - 12월

인권정보자료실  
R1.1.11

인권운동사랑방



인천운동사랑방

110-522 서울시 종로구 명륜2가 8-29 (4층) 전화 741-5363 팩스 741-5364

인권정보자료실  
R1.1.11

# 인권하루소식

## 3 진실규명 어디까지 왔나 포명령자, 미국책임 등 규명 안돼

에 대한 조명이 원천이다.  
4-3 50주년을 맞는 시점  
에 보인다. 위민연 논의와  
되고 있다.  
3에 대한 논의가 예금된  
6월말경 이후. 그전까지  
기하는 '옛조치' '금기'였고,  
이었다. 그러나 87년 6월  
출된 민주화 연기는 4-3  
을 본격화시켰고, 그 직  
후준히 계속되고 있다.  
원간의 꾸준한 노력에도  
대한 진실은 아직 일부에  
다수 양민들이 규명도보  
들에 의해 집단해살되었  
는 3만 명 이상으로 추  
과 다양한 피해 사례가  
이다. 제주도의희가  
에서도 1만1천6백여명  
83%에 해당하는  
도발대에 의해 해살  
다.  
의 핵심쟁점인 미군  
는 여전히 때문에  
민과 하게 일부가 규  
자료와 미국측 관련  
구해 왔지만, 정황  
어둠이다.

합본 11호  
(1998년 7월 ~ 12월)

# 인권하루소식

HUMAN RIGHTS DAILY NEWS

## 내뺐 별장부터 고통, 노동자 일방

이러한  
어니면.  
전당하고  
각 시업  
주위  
이르까지  
진행하고  
정적의 경  
하나라도  
이다. 소  
위기라고  
인간부의  
과 임금  
단체연  
실정

인천운동사랑방

# 인권하루소식

합본 11호

(제1157호 - 제1280호)

1999. 1.

인권운동사랑방

# 차 례

머 리 글 98년 인권상황 개괄 · 인권운동사랑방/ 36

부 록 <인권하루소식> 합본 11호 색인/ 357

**제1157호(98.7.1, 수) / 57**

- 1면 · 여연, 유엔에 민간보고서 제출, 신 가부장제로 여성차별
- 진보단체 탄압에 각계 사회단체 공동대응 - “이적규정 좌시않겠다”
- 2·3면 · 98년 6월분 총목차(1137호-1156호)

**제1158호(98.7.2, 목) / 60**

- 1면 · 사상전향제 오히려 강화-법무부, 양심수에 ‘준법서약’ 받기로
- 소통과 연대의 미래로 - 진보네트워크 추진위 발족
- 2면 · 외국인노동자협의회, 월례토론회 - 이주노동자문제, 아시아 주요 의제로
- 미군기지 환경오염 공청회 - “미국 책임보상·원상회복” 촉구
- 한국타이어 인권유린 고발 - 김동진 기자 선고유예

**제1159호(98.7.3, 금) / 62**

- 1면 · 자백만으론 증거 안돼 - 동아대 간첩단 사건 무죄 판결
- <만화사랑방> 이름만 바뀐 전향제도
- 2면 · 사법연수생 충격적 고백 - “검찰 내 가혹행위 수차례 목격”

- 사상전향제도의 역사
- “준법서약도 사상전향”, 양심수 가족 분통

**제1160호(98.7.4, 토) / 64**

- 1면
- 조세형 씨 보호감호처분 재심 결심공판 - 살인사건 은폐 위해 업정독거
  - 산재추방운동 10년 평가 토론회 - IMF 이후 산재위험 높아져
  - 법원, 고문경관 이근안 소재탐지 명령
- 2면
- <조세형 씨 최후진술 요지> “동료 죽음 알리려 2개월간 ‘난동’ 준비”

**제1161호(98.7.7, 화) / 65**

- 1면
- 양심수 석방, 개혁의 출발 - 천주교, 양심수 석방운동 본격 시동
  - 한국교회여성연합회, 여성양심수 석방 촉구
  - 전재천 씨 구명운동, 각계인사 서명 활발
- 2면
- <요약> 사형수 전재천 씨의 편지-“지난날을 돌이키며 반성합니다”
  - 주간인권호름(6월29일-7월5일)

**제1162호(98.7.8, 수) / 67**

- 1면
- 고용계약제 급속히 확산-고용불안 갈수록 심화
  - 보충수업 일방결정 반발 - 대전 교사들, 관료행정 비난
  - 성모병원노조 한판 승리 - 노동청, 노조출입보장 약속
- 2면
- 국제사회주의자, 법정서 불법수사 폭로 - “진술거부에 협박, 환자도 밤샘수사”
  - 서울대, 열사들 명예졸업장 수여 보류, 의견수렴 미진 이유

**제1163호(98.7.9, 목) / 70**

- 1면
- 근로자 파견제 시행 - 이중착취, 노동권실종 우려
  - <광고> 『불심검문과 인권』 소책자 판매
- 2면
- 미군기지 환경오염 대책 촉구 - 후손에 물려줄 땅, 미군이 파괴
  - 안양시민, 안민청 석방호소

**제1164호(98.7.10, 금) / 72**

- 1면
- 검·경·법원·감옥 합작유린 - 누명 쓰고 3년 복역, 교도소에서 가혹행위
  - <만화사랑방> 조선족 동포 사형수 전재천 씨
- 2면
- 분노하는 ‘커피아저씨’ - 병원측, ‘바쁘다’ 핑계로 전라상태 환자방치
  -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여성실업대책본부, 여성실업 대책 촉구
  - 국제형사재판소 논쟁 치열, 로마회의 오는 17일 협약안 채택

**제1165호(98.7.11, 토) / 74**

- 1면
- 교도소에서도 타율학습 - 휴식시간 빼앗아
  - 노동자들, 노사정위 농성 - 부당노동행위 근절 촉구
- 2면
- 진보민청 사건, 부부 구속 - 두들박이 산하의 구치소 나들이
  - 양심선언자 보호법 추진/양노총, 노사정위 탈퇴
  - <국제인권소식> 콩고민주공화국 - 카빌라 정부, 계산된 석방

**제1166호(98.7.14, 화) / 76**

- 1면
- 14개 종교·인권단체, 공동기자회견 - 8·15사면, 인권의지 시금석
- 2면
- 결핵대책위, 기획예산위 방문 - “병원 민간위탁, 공공성 저하”
  - 주간인권호름(7월6일-7월12일)

3면 · <인권시평> 원칙과 개념에 대하여 - 오창익(천주교 인권위원회 사무국장)

**제1167호(98.7.15, 수) / 79**

1면 · ‘국제미아’된 탈북자 - 김용화 씨, 생사기रो에 놓여  
· 주교회의, 양심수 석방 탄원

2면 · 재개발지역 무법자를 심판하라 - 각계 사회단체, 다원건설 형사고발  
· AI, 파업 진압 자제 촉구  
· 전학련 항소심, 원심확정  
· <발언록> 박상천 법무부장관 - “준법서약, 석방 필수조건”

**제1168호(98.7.16, 목) / 81**

1면 · 고객 돈으로 명퇴급 잔치? - 장은증권 노조, 진상규명 촉구  
· 경찰의 편의, 시민의 불편 - 시위 빌미로 버스정류장까지 폐쇄

2면 · 투쟁만이 살길이다 - 15일 민주노총 총파업 돌입  
· 시장주의적 구조조정 반대, 민교협·학단협 성명  
· 강위원 5기 한총련 의장, 단식중 쓰러져 - 한총련 탄압 중단 요구

3면 · <자료> 동아대 간첩단 사건 항소심 판결문 - 합리성 결여된 자백 증거 못돼

**호외(98.7.16, 목) / 84**

1·2면 · 양지마을 속보 - 부랑인 수용시설 양지마을 진상조사단 긴급 파견

**제1169호(98.7.18, 토) / 86**

1면 · 충격! 양지마을 - 허울만 복지시설, 실상은 강제노역장  
· <만화사랑방> 참혹한 양지마을

2면 · 양지마을의 불법 인권유린 실상 - “대한국민 국민이 아니라 노예입니다”

**호외(98.7.20, 월) / 88**

1면 · <특집> 육지 위의 노예선 ‘양지마을’ ① 구타와 가혹행위

**제1170호(98.7.21, 화) / 89**

1면 · <특집> 육지 위의 노예선 ‘양지마을’ ② 단속·심사, 기준도 없다  
· 대만인권촉진회, 조건없는 양심수 석방 촉구  
2면 · ‘전재천 씨 구명’, 탄원서 전달 - 부산지역 시민, 구명운동 동참  
· 민가협, ‘양심수 석방’ 캠페인 돌입 - 3일간 하루 감옥체험도  
· 주간인권호름(7월13일-7월19일)

**제1171호(98.7.22, 수) / 91**

1면 · <특집> 육지 위의 노예선 ‘양지마을’ ③ 퇴소, 하늘의 별따기  
2면 · 자율과 개방 속의 평화 - 또 다른 부랑인 시설, ‘은평의 마을’  
· 해고통보, 임산부 유산 - 금속연맹, “총파업 불가피”

**제1172호(98.7.23, 목) / 93**

1면 · 또 다시 공안 칼바람 - 총파업 앞두고 조직사건 터져  
2면 · 양지마을, 형사고발키로 - 민변 등 인권단체, 1차 조사결과 발표  
· “부랑인들은 인권이 없나요?” - 시민들, ‘부랑인 강제수용’ 반대

**제1173호(98.7.24, 금) / 95**

- 1면 · 비난받는 '파업 탄압' - 국제앰네스티, 노동권 보장 촉구
- 양지마을 파문 확대 - 검찰, 전국 부랑인시설 내사 착수
- 여성 양심수 감옥안 고통 호소 - 아파도 참을 수밖에

- 2면 · <특집> 육지 위의 노예선 '양지마을' ④ "그들도 인간이다"
- 확대되는 공안탄압, 울산시 동구청장 연행
- <만화사랑방> 다양한 노동자 탄압

**제1174호(98.7.25, 토) / 97**

- 1면 · 부산경찰청, 부산·울산 조직사건(일명 동창회 사건) 중간수사 발표
- "김대중, 과거 답습" - AI, 공안탄압 중단 촉구
- "민간인 불법사찰, 국가배상"-대법원 확정 판결
- 2면 · 안양교도소 출소자, 교도소 가혹행위 호소 - 징벌 끝나고도 수감차고 생활
- 현대 신입사원, 일방적 채용파기 맞서 투쟁

**제1175호(98.7.28, 화) / 99**

- 1면 · 해고가 빛은 가정파괴 - 현대자동차, 무리한 해고통지서 전달
- 부산·울산 조직사건, 각계 비판 여론 거세
- 지난해 수원·안양 인권영화제 집행위, 음비법 위반 벌금형
- 2면 · 시한부 인생까지 감옥행, 부모 구속 ... 아이는 '어린이집'으로
- 주간인권호름(7월20일-7월26일)
- 3면 · <인권시평> '양지마을' 그 아름다운 이름을 위해- 박래군(인권운동사랑방)

**제1176호(98.7.29, 수) / 102**

- 1면 · 결핵환자, 일단 숨들려 - 보건복지부, 국립병원 유지 입장표명

- <새로 나온 논문> 「학생 인권 침해에 관한 연구-고등학교를 중심으로」
- 2면 · "개구명으론 나갈 수 없다", '준법서약' 양심자유 침해 확인
- 알 권리 무시, 일방 공사 - 남양주 주민 가스기지 건설 반발

**제1177호(98.7.30, 목) / 104**

- 1면 · 찍히면 발 묶인다 - 안기부, 재야인사 출국봉쇄
- <해설> '거주이전 자유' 자의적 제한
- 2면 · 아몰지 못한 전쟁의 상처 - '노근리 학살' 희생자 위령제 열려
- 양지마을 퇴소, 그후

**제1178호(98.7.31, 금) / 106**

- 1면 · '전자주민카드'에 목숨건 행자부 - 타 부처 만류 불구, 사업 강행 고집
- <만화사랑방> 이중적인 양심수 정책
- 2면 · 목요집회, 양심수 편지 소개 - 그리움 깊어도 양심은 지키고파
- 검·경 이래도 되나 - 대학생 상대, '범죄자 만들기' 혈안

**제1179호(98.8.1, 토) / 111**

- 1면 · 법원, "조세형 씨 격리" 명령, 15년 독방 가두고 "갱생 노력 없었다"
- 대구시민 "몬 살아", 미군비행장 이전 촉구
- 2·3면 · 98년 7월분 총목차(1157호-1178호)

**제1180호(98.8.4, 화) / 114**

- 1면 · 동포돕기 이적매도 비난 - '한민전 영남위원회' 사건, 주민 반발 거세
- '열사 명예회복' 청신호, 범국민추진위 결성
- 2면 · <성명서 요약> 모든 양심수를 조건없이 석방하라(양심수석방공대위)
- 주간인권호름(7월 27일- 8월 2일)

**제1181호(98.8.5, 수)**

**/ 116**

- 1면 · 공권력은 치외법권? - 경찰, 불법검문하고도 안하무인
- '집회의 자유' 없는 나라 - 경찰, 행사 끝난 고려대 계속 봉쇄
- 고리핵발전소 노동자 사망, 방사능 피폭 여부 우려
- 2면 · 탈북자 갈 곳 어디에, 김용화 씨 강제송환 여부 주목
- 안중에도 없는 가족 인권 - 현대자동차, 정리해고 물의
- 양심수 석방을 위한 캠페인 '98 양심수가 없는 나라'

**제1182호(98.8.6, 목)**

**/ 118**

- 1면 · 양지마을 감사결과 발표 - 보건복지부, 시설장 교체 등 지시
- <복지부 자료> 전국 부랑인시설 실태조사 지시사항
- 2면 · '사람'은 안중에 없는 재개발 - 도원동 철거민, 명드는 가슴
- "약이야? 독이야?" - 청년진보당, 공기업민영화 철회 촉구

**제1183호(98.8.7, 금)**

**/ 120**

- 1면 · 정리해고 속셈 탄 곳에 - 현대자동차, 노조측 대안·협상요청 무시
- 2면 · 소망한다 '양심수가 없는 나라' - '98 양심수 석방을 위한 캠페인' 돌입
- 전북지역에서도 양심수 캠페인 전개
- 명동의 난폭자 '전투경찰', 불법검문 감시단 강제연행
- 3면 · <특집> 양심수 문제, 이제는 끝내야 한다 ① 김대중 정권, 차별화 의지 보일 때
- <만화사랑방> 준법서약제

**제1184호(98.8.8, 토)**

**/ 123**

- 1면 · "노재중은 특수강도" - 민변 등 인권 3단체, 양지마을 고발
- 경찰, 구사대 폭력방치
- 기독교계, 양심수 석방 촉구 - 미국·일본에서도 서한
- 2면 · <특집> 양심수 문제, 이제는 끝내야 한다 ② '문민정부' 이전의 구속자들
- '감옥체험' 동참한 각계 인사들

**제1185호(98.8.11, 화)**

**/ 125**

- 1면 · <특집> 양심수 문제, 이제는 끝내야 한다 ③ '김대중 정권'의 양심수
- 2면 · "수배조치 해제하라", 한총련 수배자 7명 조계사 농성 돌입
- 주간인권호름(8월 3일 - 8월 9일)
- 3면 · <하루감옥 체험기> 궁시령 궁시령 - 배유정(방송인)

**제1186호(98.8.12, 수)**

**/ 128**

- 1면 · 대인지뢰 위험 적신호, 폭우 속 지뢰 유실·주민 피해 발생
- 춘천교도소 불법징벌 시비, "면담요구하자 시승시갑"
- 2면 · <특집> 양심수 문제, 이제는 끝내야 한다 ④ 감옥으로부터의 편지

**제1187호(98.8.13, 목)**

**/ 130**

- 1면 · 반인륜적 용공조작 중단촉구 - 시민단체, '부산·울산 국보법 사건' 기자회견
- 평화와 인권연대, "양심수 석방·국보법 철폐" 촉구 집회
- 2면 · "공권력 투입, 할 테면 해봐" - 현대자동차 가족대책위, 결사투쟁 선언
- 잠수함 의혹제기 무죄, 윤석진 씨 항소심 재판
- <국제인권소식> 미얀마 - 외국인 인권활동가 18명 구금

**제1188호(98.8.14, 금) / 132**

- 1면 · <특집> 양심수 문제, 이제는 끝내야 한다 ⑤ (끝) 국보법 7조부터
- 2면 · <인터뷰> 박래군(구국전위 사건) “양심수들 고통·고민 컸다”
- <만화사랑방> 수해와 대인지뢰

**호외(98.8.14, 금) / 134**

- 1-3면 · <8·15특사> 양심수 94명 석방, 9명 감형 - 비전향장기수 17명 제외

**제1189호(98.8.18, 화) / 137**

- 1면 · 포장만 화려한 8·15 특사, 풀려난 양심수도 족쇄 여전
- 장기수 금재성 씨 운명, 보라매병원서 영결식
- 2면 · 공권력투입 방침, 울산 긴장고조 - 사회각계, 평화해결 촉구
- 한양공영 등, 이미 공권력 투입
- 주간인권흐름(8월 10일- 8월 16일)

**제1190호(98.8.19, 수) / 139**

- 1면 · “공권력 투입 안된다” 각계인사, 현대 사태 평화적 해결 촉구
-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, “추가 사면” 요청 - 9월 김대중 대통령 면담 예정
- 2면 · “헌정 파괴엔 은전, 민주화투쟁은 찬밥”, 정치수배자 7명 기자회견
- 진보네트워크센터, 시범서비스 실시
- <새로 나온 책> 『역감시의 권리로써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재구성』

**제1191호(98.8.20, 목) / 141**

- 1면 · <현장스케치> 현대자동차 울산공장, “깨지더라도 끝까지”
- 관노청, 항소심서도 유죄
- 2면 · 춘천교도소, 불법징벌 무마 위해 재소자 협박, ‘건달징역’ 활개 의혹도
- 미안마, 인권활동가 국외추방
- <연설요약> 김광식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
- <인터뷰> 현대자동차 가족대책위 대표 이영자 씨

**제1192호(98.8.21, 금) / 143**

- 1면 · 마지막 시민군 김영철, 18년간 광주항쟁의 한복판에
- 조직사건, 한민전 영남위원회-용공매도 이제 그만, 경찰청 앞 항의집회
- 2면 · 보랏빛 수건, 다시 거리로-미석방 양심수 가족들, 배신감 표출
- ‘상록수’ 가르쳤다고 파면-영신여실고, 전교조 교사 탄압
- <만화사랑방> DJ의 양심

**제1193호(98.8.22, 토) / 145**

- 1면 · “갈 곳 없는 세입자” - 수원시 권선4지구, 강제철거
- “정치인부터 고통분담을”-범국민운동본부, 광화문 집회
- 2면 · <이 달의 인권영화> 「우리들의 사계」
- “교수임용제도 개혁하라”-서울대 학생회, 김민수 교수 재임용 촉구

**제1194호(98.8.25, 화) / 147**

- 1면 · 경찰, 정치사찰 의혹-청년진보당, 재발방지 사과문 받아
- AI 한국지부, 인권캠프 폐막-‘인권의 현재적 의의를 찾아’
- 진보민청 첫 재판 열려



- 2면 · 경제위기, 인권의 위기-‘IMF, 인권과 교회’ 국제포럼 열려
- 민주노총, 노·정합의 이행 촉구
- 주간인권호름(8월 17일-8월 23일)
- 3면 · <특별기고> “양심수에게 사면은 없다” - 김도형(변호사, 민변)

**제1195호(98.8.26, 수) / 150**

- 1면 · 짐작만 못한 재소자-정원 2배 수용, 환자 ‘고통’ 호소
- 청소년 인권 다룬 고딩 영화제 “우리이야기, 우리가 해요”
- 2면 · <요약> 21세기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 국제학술대회-‘동아시아 냉전과 민중’

**제1196호(98.8.27) / 152**

- 1면 · 철거폭력업체 다윈, 또 활약-서대문구 남가좌동 재개발지역
- “인권대통령 자질미비”-재야, 양심수 정책 전환 촉구
- 범국민서명운동 돌입-재벌퇴진 · 실업대책 촉구
- 2·3면 · <요약> 21세기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 국제학술대회-2주제: 냉전체제 폭력  
과 동아시아 여성(일본 · 한국)

**제1197호(98.8.28, 금) / 155**

- 1면 · 최근 대학생 8백여 명 연행-수해복구활동 중에도 잡혀가
- “국가보안법 괴물 처치해 주세요”-부산 · 울산 구속자 자녀 호소
- 2·3면 · <요약> 21세기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 국제학술대회-3주제: 냉전체제하의  
양민학살의 실상(제주 4·3과 여순 사건, 대만 50년대의 백색테러)

**제1198호(98.8.29, 토) / 158**

- 1면 · 문 신부 구속, 공안몰이 의혹-민간 대북화해 노력 찬물
- 시설 수용자 보는 시각 바뀌야-인권포럼, 국가책임 지적
- 2·3면 · 98년 8월분 총목차(1179호-1198호)

**제1199호(98.9.1, 화) / 163**

- 1면 · 월간조선 매카시즘 준동, ‘부산 · 울산 사건’ 피의사실 불법 공포
- 2면 · 진상규명 · 명예회복 특별법안 발표 - 열사범추위, 가을 정기국회 상정예정
- 민가협 집계, 양심수 4백2명 가운데 국보법 구속자가 2/3 차지
- 주간인권호름(8월 24일 - 8월 30일)

**제1200호(98.9.2, 수) / 165**

- 1면 · 현 정권 과거청산 가능한가, 정치권 · 시민사회계 열띤 논쟁
- 경찰, 항의방문 간 사람까지 연행
- 2면 · <자료> 8·15통일대축전 문규현 신부 연설 전문
- 3면 · <자료>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방북 보고서

**제1201호(98.9.3, 목) / 168**

- 1면 · 정부, 노·정 합의 휴지취급 - 노동자들 힘겨운 싸움 계속
- “양심이 탄압받지 않는 사회” - 양심수 전원석방 촉구
- 2면 · ‘거부의 권리’ 적극 제기해야, 불심검문 불복종운동 반년 평가
- “재소자는 건의도 못해?”, 광주교도소 불법 계구 사용

**제1202호(98.9.4, 금) / 170**

- 1면 · 만도기계, 끝내 경찰력 투입 - 노동계 거센 저항 예상

· <만화사랑방> 문규현 신부 구속사건

2면

- 한미행정협정, 범죄자 보호협정? - 한국인 여성 살해한 미군 처벌 어려워
- 김훈 증위, 자살? 타살? - 미국 법의학자, 타살 가능성 주장
- 도원동 주민 울분만 쌓여 - 전철연 의장 한때 연행

**제1203호(98.9.5, 토)**

**/ 172**

1면

- 남의 생계보단 내 집이 우선 - 노사정위원회, 경찰 개입 묵인
- 춘천교도소 면회제한 물의, 양심수 3인 징벌방 수감

2면

- 문규현 신부 구속사건에 대한 법률적 비판(김승환 전북대 법대 교수)
- 젓먹이 아이까지 무차별 진압, 만도기계 경찰 투입 현장

**제1204호(98.9.8, 화)**

**/ 174**

1면

- 춘천교도소, 보복성 징벌 의혹 - 재소자 3명 한 달간 징벌방 수감 조치
- 정리해고 편집증에 빠진 사회 - “정리해고 반대 파업 불법 아니다”
- 노동쟁의란?

2면

- <정리해고 기사> 1면에서 이어짐
- 주간인권호름(8월 31일 - 9월 6일)

3면

- <인권시평> 과외가 필요하다 - 불법고액과외 파문을 바라보며(류은숙)

**제1205호(98.9.9, 수)**

**/ 177**

1면

- 노조건설 이유로 ‘해고·대기발령’, 청주 오리온 프리토레이 공장
- 국제엠네스티 사무총장 방한, 한국 인권상황 개선 촉구할 듯

2면

- 춘천교도소 인권유린 실태보고-불법 계구 사용 남발, 재소자 청원 묵살 일쑤

**제1206호(98.9.10, 목)**

**/ 179**

1면

- 아남반도체도 경찰력 투입, 9일 새벽 노조원 39명 전원 연행
- 만도 파업투쟁 지속, 현장에선 집회 명동에선 농성

2면

- 영남위 사건, 전원 기소 - 대책위 “짜맞추기 사건” 비난
- 엠네스티 “국보법 유감” 표명 - 김 대통령 “덜지 않은 장래에 개정”

**제1207호(98.9.11, 금)**

**/ 181**

1면

- “변명은 이제 그만” - 싸네 엠네스티 총장, 준법서약 폐지 등 촉구
- <만화사랑방> 김대중 정권과 노동현장 경찰력 투입

2면

- “IMF에 도전하는 민중”, 서울국제민중회의 9일 개막
- <해외단체 소개> ‘가난한자들의 모임’(태국)

**제1208호(98.9.12, 토)**

**/ 183**

1면

- “파괴에 맞서 연대로”, 98 서울국제민중회의 폐막
- 유가협 후원회 재건, 회장에 이해동 목사

2면

- <한국정부에 대한 국제엠네스티 권고사항> 한국 인권상황 오히려 악화

**제1209호(98.9.15, 화)**

**/ 185**

1면

- ‘복지시설 민간감시단’ 제안, 양지마을·송현원 보고대회 열려

2면

- 이제는 ‘진실·명예’ 되찾자, 민족민주열사 추모주간 돌입
- 주간인권호름(9월 7일 - 9월 13일)

3면

- <주요 발표 요약> 98 서울국제민중회의 ① 미국·프랑스 노동자

**제1210호(98.9.16, 수)**

**/ 188**

- 1면 · 현대자동차 가족들도 수배생활, 회사측 합의불이행 · 노조파괴에 혈안  
· 연좌제 연루 차정원 씨, 최종 승소  
· <새로 나온 책> 『세계이주노동운동 관련 최근자료 번역집』 (외노협 펴냄)
- 2면 · <주요발표요약> 98 서울국제민중회의 ② 사빠띠스파  
· 양지마을 퇴소자들, 정부에 사후대책 촉구  
· 정신보건법 개정 간담회, 정신질환자 인권개선 논의
- 3면 · <기자회견문> 고용안정 투쟁을 마무리하며(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 김광식)

**제1211호(98.9.17, 목) / 191**

- 1면 · 대학생 집회참가 원천봉쇄, 농민대회장 불법연행 뒤 모두 훈방  
· 아시아여성인권 세미나 개막, '무력분쟁과 성폭력' 주제로  
· 경찰청 앞 집회 가능할까, 행정소송 심리 이 달 끝나
- 2면 · <주요발표요약> 98 서울국제민중회의 ③ 민영화라는 전염병(페르디난드)

**제1212호(98.9.18, 금) / 193**

- 1면 · 인권법 왜 숨어서 만드나, 민간단체 '공동추진위' 결성  
· <만화사랑방> 현대차 노사합의 휴지조각
- 2면 · <인터뷰> 광노현(국가공추위 집행위원장), "인권법 제정, 국민적 협의 필수"  
· 박상천 법무장관 국민대 특강, "인권위원회 독자적으로 설치"

**제1213호(98.9.19, 토) / 195**

- 1면 · 재소자 약반입 불허 항의, 부산구치소 재소자 집단 단식농성  
· <인터뷰> 푸스파 인사니(인도네시아 학생운동가)
- 2면 · 박 장관 "민간단체와 협의하겠다" - 인권법 관련, 민간단체 대표단 면담

- <인터뷰> 최영도 변호사(민변 회장) "법안 미공개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"  
· 재야운동가 안기부 연행, 간첩 혐의

**제1214호(98.9.22, 화) / 197**

- 1면 · 서울시 '강제수용 만능주의', 노숙자 반발 · 인권침해 잇따를 듯  
· 부산주례구치소 의료제한 파문 - 가족들 '단식동참' 표명, 재소자 17명 5일째 단식
- 2면 · 사이버권리 침해 신고접수, 검열 · 프라이버시 침해 등  
· 주간인권흐름(9월 14일 - 9월 20일)
- 3면 · <인권시평> 사회안전망 구축에 나서자(이태곤 『함께걸음』 편집부장)

**제1215호(98.9.23, 수) / 201**

- 1면 · 청송교도소 공개 '전시용', 곁잡기 참관일정 · 초청대상 선정도 문제  
· "노숙자 똥오줌은 안돼" - 서울역 심야 화장실 개방 거부
- 2면 · "잠자리보다 일자리다", 동절기 노숙자대책 수용일변도 비판  
· 계훈제 선생 돕기 모임

**제1216호(98.9.24, 목) / 202**

- 1면 · 박경순 씨 한방치료 허용, 부산구치소 재소자 요구 수용키로  
· 수배 · 실직자 딱한 처지, 명동성당 "농성자 철수" 요구  
· 생존권 · 시민권 동시 후퇴, 경제위기에 노동자 구속 급증
- 2면 · 제3회 인권영화제 12월 5일 개막, 대량실업 · 홈리스 문제 등 특별기획전

**제1217호(98.9.25, 금) / 204**

- 1면 · 국보법 철폐 백만인서명운동 돌입, 민권공대위 '한총련 살리기' 운동도

· 민주노총 5백만 서명운동, 일자리보장·재벌재산 환수 촉구

· <만화사랑방> 손가락 절단사건

2면

· 청년실업자운동 향배 주목, 30개 대학 '특별위원회' 구성 후 활동 들어가

· 서울역 화장실 야간 개방, 노숙자 요청 수용

· 장기수 조상록 씨 단식후유증 앓아, 준법서약 항의·열사 추모 단식 전개

### 제1218호(98.9.26, 토)

/ 206

1면

· 밀실서 탄생한 '허수아비' 인권위, 법무부 인권법 시안 발표

· "전자주민카드 포기하라" - 시민공대위, 행자부 입장 비판

2면

· 8·15 출소자 2명, 준법서약제 철폐 촉구 농성

· 죽음으로 내모는 노점단속, 장애인 노점 중태

### 제1219호(98.9.29, 화)

/ 208

1면

· 준비된 개방, 의혹은 여전 - 청송 4개 교정시설 공개

· 전북 경찰, 사제복 입은 신부 폭행

2면

· '광기 서린' 대학생 탄압, 대량구속·수배 계속

· 주간인권호름(9월 21일- 9월 27일)

### 제1220호(98.9.30, 수)

/ 210

1면

· 접대엔 안달, 공개엔 인색 - 취지 못 살린 청송교도소 공개

· <기자수첩> '반국가사범' 타령 - 은행 파업 대응, 95년 한통사태 연상

2·3면

· 98년 9월분 총목차(1199호-1220호)

### 제1221호(98.10.1, 목)

/ 215

1면

· 고양이에게 또 생선을? - 인권유린 사회복지시설 '구생원', 사후처리 유감

2면

· 시대의 낙인 '한총련 대의원' - 낮에는 학생회 활동, 밤에는 잠자리 걱정

· 여성노동자, 3차 집회 개최 - 비정규직 악용 사례 등 보고

### 제1222호(98.10.2, 금)

/ 217

1면

· "재수감 두렵지 않다" - 당국 압력 속 준법서약 철회투쟁

· "재수감 압력 중단" 요구 - 민권공대위

2면

· 무너지는 대학 자치 - 언론·표현활동 등 기본권조차 못 지켜

· 경찰청장 고발한 재야인사 명예훼손 혐의로 체포

### 제1223호(98.10.8, 목)

/ 219

1면

· 양심수 추가석방 선물 기대 - 김 대통령 방일 ... 재일 인권단체 탄원

· 인권단체, 법무부에 건의문 - '청송 개방 전시용' 비판

·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 아태지역 아동미술경연대회

· 안민청 유죄 선고 - 김종박 씨 실형, 8명 집행유예

2면

· <인권시평> 윤금이 씨를 생각하며 (정유진)

### 제1224호(98.10.9, 금)

/ 221

1면

· 전후보상·차별철폐 숙원 - 재일동포, 기대·우려 교차

· 교도소 개방 계속될 듯 - 법무부 교정국장, 인권단체 면담

2면

· "비정규직 노동자에 미래 달렸다" - 비정규직·정규직, 연대 의식 확산

· 신세계 노조 설립 - 삼성에 파급여부 관심

· 진보네트워크 접속 이상 - 한총련 홈페이지 문제삼아 차단

**제1225호(98.10.10, 토)**

**/ 223**

- 1면 · 불법검문 피해, 국가배상 청구 - 대학생 5명, 각 5백만원 씩 신청
- 천륜도 무시하는 교정행정 - 부친상 당한 재소자, 장례 참석 못해
- 2면 · 명동농성 김태완 씨 '재수감' 경고 - 경찰, 준법서약 폐지투쟁 중단 요구
- <기자수첩> 영파여중 파문 - '너희가 중당을 아느냐'
- 경찰, 박정기 씨 소환 조사 - 범민족대회 참가 관련
- '영남위사건' 편파보도 월간조선 반론문 게재키로

**제1226호(98.10.13, 화)**

**/ 225**

- 1면 · "한나라당 반성은 없나" - 고문·총격요청 의혹 분리 규명해야
- 총격요청 피의자 가족들이 밝힌 고문의혹
- 2면 · "국보법 폐지" 의견 72% - 전국 52개 대학 8백25명 설문조사
- 주간인권호름(9월 28일 - 10월 11일)

**제1227호(98.10.14, 수)**

**/ 227**

- 1면 · 파잉진압·최루탄 난사 불법 - 법원, 이태춘 씨 의문사 국가책임 확인
- '영남위' 구속자, 공소사실 모두 부인 - 피의자 가정 몰래카메라 촬영 인권시비
- 2면 · 서민 겨울나기에 철거 먹구름 - 경기 의왕시 오전동 강제철거 몸살
- <판결문 요약> 이태춘 씨 사망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

**제1228호(98.10.15, 목)**

**/ 229**

- 1면 · 김형찬 씨에 국가배상 판결 - 안기부 불법체포 인정 -고문은 증거 불충분
- '98 민중대회 열린다 -민중의지 집약, 10대 요구안 마련
- 2면 · 인도주의 - 교정행정 충돌 - 재소자 귀휴 조치, 실질화 필요할 듯

- 수사 명목 과도한 촬영, 문제 - '영남위' 피의자 집, 3년간 전화감청·촬영
- 희망새 대표 집행유예 - 범민족대회 공연 협의

**제1229호(98.10.16, 금)**

**/ 231**

- 1면 · 준법서약 속셈 보인다 - 당국, 명동성당 농성자 연행 시도
- 김양무 씨 직장암 사경 - 국보법 위반 혐의 수감중
- 2면 · <해설>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기준법 적용 - 연수제 등 과제 남아
- PC통신 '조선일보' 난리 - 불매·폐간 서명운동 확산
-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요구 -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
- 최종길 씨 의문사 규명 촉구 - 73년 중앙정보부에서 변사

**제1230호(98.10.17, 토)**

**/ 233**

- 1면 · 법무부, 인권법 일방추진 시사 - 각계 비판 외면한 채 법무부 시안 고집
- 수배자가족협의회 결성 - 정치수배 해제 촉구
- 2면 · "사회주의 지향 = 이적행위" - 진보민청 간부, 징역 4·5년 구형
- "통일축전 참석 불가피" - 문규현 신부, 첫 재판 열려
- 3면 · <요약> 진보민청 최후진술 요지 - "우리는 진보를 꿈꿨을 뿐이다"

**제1231호(98.10.20, 화)**

**/ 234**

- 1면 · 평화행사에 또 곤봉세례 - 경찰, '98 노동자문화제 원천봉쇄
- 느닷없는 '학생인권선언' - 실효성 의문, 전시행정 우려
- 2면 · 영남위 구속자, 국보법 폐지 주장, 부산구치소 이은미 씨 건강 악화
- 주간인권호름(10월 12일-10월 18일)
- 3면 · <인권시평> 그거 또 외우는 건가요?(류은숙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장)

제1232호(98.10.21, 수)

/ 239

- 1면 · 사람잡는 총기사용 남발 - 경찰 총에 또 범죄용의자 사망
- 말레이시아, '보안법' 철폐 시위 - 인권운동가 등 1백여 명 연행
- 2면 · <브라이언 버드킨과의 '국가인권기구' 간담회> "범무부안 독립성 확보 어려울 듯"
- 유가협, 김 대통령 면담 - 특별법 제정 약속 받아
- 직장암 수인 김양무 씨 - 구속집행정지 허가

제1233호(98.10.22, 목)

/ 241

- 1면 · 불심검문 피해, 1백만원 배상 - 경북대생 국가 상대로 손해소송 승소
- 문규현 신부·강희남 목사 보석으로 풀려나
- 2면 · <본질 비켜가는 통신감청 논란> - 통신감청 근본적 통제 필요
- 한국통신 대량징계 물의 - 노동자 '노조 길들이기' 반발

제1234호(98.10.23, 금)

/ 243

- 1면 · 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 - 국보법 위헌제청 신청
- 총기사용 이제 그만 -인권협, 경찰청 앞 시위
- 고용보험 빈틈 많다 - 노동계, 고용보험법 재개정 촉구
- 2면 · <요약> 사건 98고합952호 국가보안법 위반 -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

제1235호(98.10.24, 토)

/ 245

- 1면 · AI, 법무부 인권법 비판 - "국제기준 미달·약체 인권위 예상"
- '진보인사 죽이기' 전문가? - 송두율·이장희 교수도 여지없이 난도질
- 2면 · 단결된 시민의지의 승리 - 미군 위조지폐범 한국 법정서 실행선고

· <인터뷰> 준법서약 철폐 농성단 송계호 씨 - "구속중인 양심수 더 큰 부담"

제1236호(98.10.27, 화)

/ 247

- 1면 · 폭행에 항의하자 먹방 감금 - 의정부 교도소, 교도관이 재소자 폭행
- 여성계, '인권 관련 국가기구' 토론
- <광고> 국가인권기구 공추위 홈페이지
- 2면 · 도시 서민들 위한 주택 정책 절실 - 1가구 1주택 정책 정착돼야
- 고영주 사무총장 실행 선고 - 민주노총, '보복성 판결' 주장
- 주간인권흐름(10월 19일 - 10월 25일)

제1237호(98.10.28, 수)

/ 249

- 1면 · 구타·협박 등 강압수사 여전 - '영남위' 구속자, 수사 중 인권유린 주장
- 인권간행물 소개 - 「불법도청 '합법' 감청」
- 2면 · 김형찬 씨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문 - 불법체포에 대한 국가의 손해 명령
- "억울하게 죽어간 딸들이여" - 주한미군범죄 희생자 추모제 개최

제1238호(98.10.29, 목)

/ 251

- 1면 · 차별이 에이즈 확산 부른다 - 국회인권포럼, '에이즈감염인 인권' 토론
- 전노운협 이적혐의 벗어 - 대법원 '면소판결' 확정
- 부산에서도 국보법 철폐 운동 - 지역 사회단체 연대기구 구성
- 2면 · 대학 구조조정에 점거농성 잇따라 - "경쟁보다 공공성 강화해야" 지적
- '결혼임신퇴직제 부활' - 여성노동자 차별 심화
- 오리는 해고자 연행

제1239호(98.10.30, 금)

/ 253

- 1면 · 백령도 주민들의 공포 - 대인지뢰 발 ... 잃어버린 삶터
- 명동성당 단식농성 돌입 - "양심수 처우 악화" 주장
- 2면 · 강제철거 되풀이, 주민·용역 충돌 - 수원 권선4지구 강제철거 발생
- 학생인권선언 제대로! - 교육부 비판·제안 잇따라

제1240호(98.10.31, 토)

/ 255

- 1면 · 잠든 주민 끌어내고 싹쓸이, 경기도 의왕시 재개발지역 강제철거
- 주거기본법 제정촉구, 주거연합·전철연 연대투쟁
- 김봉태 의장 징역 2년, 진보민청 이적혐의 유죄선고
- 2·3면 · 98년 10월분 총목차(1221-1240호)

제1241호(98.11.3, 화)

/ 261

- 1면 · '책읽는 교도소' 말뿐인가 - 검열 불편 이유로 도서 반입 금지
- 공안당국 다시 기지개 - 단국대·인제대생 대거 연행
- 2면 · "사실왜곡, 언론자유 아니다" - 조선일보 규탄 한 목소리
- 주간인권호름(10월 26일~10월 31일)

제1242호(98.11.4,, 수)

/ 263

- 1면 · '야만을 넘어 인권의 세계로' - 제3회 인권영화제 12월 5일~10일 개최
- 2면 · 근거 없는 '재범 우려' - 조세형 씨에 대한 보호감호 처분 부당
- '특별법 제정' 국회 앞 농성 - 유가협, 제13차 총회 개최
- 통일운동단체에 또 이적혐의 - 민족통일애국청년회 9명 체포

제1243호(98.11.5, 목)

/ 265

- 1면 · 중고등학생 인권선언 제정 - 차별배제·결사의 자유·노동권 등 천명
- <만화사랑방> 학생인권선언
- 2면 · 전경·해군 의문사 잇따라 - 당국 '자살' 주장...유족 '의혹' 제기
- 유가협 국회앞 농성 돌입 - "올해 안 특별법 제정" 촉구

제1244호(98.11.6, 금)

/ 267

- 1면 · 경찰청 정신 못 차렸다 - 불심검문 시비 "요령부족" 때문이라니
- 민애청 6명 영장 기각 - 경찰, 문건 이적성 집중 추궁
- 2면 · 헌법재판소 '인권의 보루' 맞나 - "교도소 신문기사 삭제 위헌 아니다" 결정

제1245호(98.11.7, 토)

/ 269

- 1면 · 주거권 입법화 요구 고조 - 민간, "기본적 인권으로 보장" 촉구
- IMF 1년, 고통받는 민중 결집 - '98 민중대회 8일 여의도에서 개최
- 2면 · 민간단체, 인권위원회법 공개 - 사상·성적지향·병역·전과 차별 금지
- 『월간조선』 편집장 고발 - 영남위 피의사실 유포혐의
- IS 관련자 항소심 법정구속 - 재판부, "반성없다" 판단

제1246호(98.11.10, 화)

/ 271

- 1면 · "감청 제한 더 엄격히" - 시민단체,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방향 밝혀
- 민중대회, 곤봉·방패 세례 - 해산 중인 시민·대학생 연행
- 8·15 출소자 16명 준법서약제 철폐 촉구
- 2면 · 암흑의 23년 이제는 빛볼까 - 인혁당 사건 진상규명 대책위 발족
- 주간인권호름(11월 2일~11월 8일)

3면 · <인권시평> 인권선언과 장애인의 최저 삶(이태곤 「함께걸음」 편집부장)

**제1247호(98.11.11, 수) / 274**

- 1면 · 양지마을 무대책 추궁 -복지부 국감, 신입이사장 부적격 질책
- 서준식 씨 공판 재개
- <국감스캐치> 보건복지부 - 이성재 의원을 예바다로
- 2면 · '이적단체 조작' 이제 그만! - 전북대 혁신대오 사건, 항소심서도 무죄
- 국가안보 이유 비공개재판 - 영남위 사건, 재판중단 사태
- <현장> 국회 앞 유가협 농성장 - "의사봉을 두드릴 때까지"

**제1248호(98.11.12, 목) / 276**

- 1면 · 정신 못 차린 보건복지부 - "이젠 양지마을 문제없다?"
- 한계계층 실업자 생계보장 시급
- <만화사랑방> 유가협 농성
- 2면 · 국가, 결핵환자 치료 포기하나 - 국립병원 민간위탁 방침 고수
- <인권간행물> 「다원건설(구 적준) 철거범죄 보고서」

**제1249호(98.11.13, 금) / 278**

- 1면 · 노숙자 1천8백명 쉼터 입소 - "자유·희망없다" 입소 거부 상당수
- "거듭된 소환, 생활 지장" - 대공분실, 민애청 2차 재소환
- 대구·경북, 인혁당 재조명 운동 - "빼앗긴 추모비부터 찾자" 의견도
- 2면 · 사회단체 도난사건 잇따라 - "특수목적의 계획된 범죄" 추정
- 민중대회 경찰폭력 규탄 - 청년진보당 등 항의집회

**제1250호(98.11.14, 토) / 280**

- 1면 · 강제철거 앞장선 성북구청 - 대통령은 "강제철거 않겠다" 약속
- 보안관찰 대상자 검거선풍 부나 - 신고 거부 이유, 김삼석·이혜정 씨 체포
- 2면 · 얼굴 없는 감시자가 지켜본다 - 바코드·IC 카드 이용 노동자 통제

**제1251호(98.11.17, 화) / 282**

- 1면 · 대법원 인권보호원칙 파기 - 치과 의사 사건 판결, '검사 입증원칙' 무시
- 비공개 재판 논란 - '영남위 사건' 공판 또 연기
- 2면 · 진보네트워크 둘러보기
- 주간인권호름(11월 9일~11월 15일)

**제1252호(98.11.18, 수) / 284**

- 1면 · 군대 자살사건 의혹 무성 - '철책 너머는 인권사각지대' 오명 벗어야
- 공안조작 항의집회 - 민애청 사건 관련
- 2면 · <특집> 세계인권선언, 그 의미와 현재 ① - 세계인권선언의 탄생

**제1253호(98.11.19, 목) / 286**

- 1면 · 차라리 '유령'을 처벌하지 - 99년 한총련, 구성도 안됐는데 '이적' 낙인
- 무단횡단 시민 18시간 경찰서 유치 - 참여연대, 국가상대 1천만원 배상청구
- 2면 · <특집> 세계인권선언, 그 의미와 현재 ② - 세계인권선언의 정신: 전문

**제1254호(98.11.20, 금) / 288**

- 1면 · 위안부 전범재판 2천년 개최 - 정대협, 이 달 말 한국위원회 발족키로
- 조선일보 비판 통신인 체포 - 김대중 주필, 명예훼손 고발
- <인권간행물> 「철거민이 본 철거-서울시 철거민 운동사」
- 2면 · <특집> 세계인권선언, 그 의미와 현재 ③ 제 1·2조 - 차별은 안돼!



**제1255호(98.11.21, 토)**

**/ 290**

- 1면 · 출입국관리소 가혹행위 발뺎 - 중국교포 폭행한 뒤, 몰래 출국시켜
- “클린턴 공식 사과하라” - 방위비분담금 축소 촉구
- 유가협, 국민회의서 농성 - 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
- 2면 · <특집> 세계인권선언, 그 의미와 현재 ④ 제3·4조 - 노예는 없다!

**제1256호(98.11.24, 화)**

**/ 292**

- 1면 · 관료들 하는 일이란 ... 학생인권선언, 시작만 거창·용두사미 우려
- 한국정부, ILO에 또 망신 - 실업자노조 인정 등 권고받아
- 2면 · “자유민주주의부터 검토하자” - 민교협 심포지엄, 한국인권 과제 토론
- <광고> 총기 피해자 민사소송 함께 합니다
- 주간인권호름(11월 16일~11월 22일)
- 3면 · <인권시평> 국가보안법 50년 오명을 벗자(정유진)

**제1257호(98.11.25, 수)**

**/ 295**

- 1면 · 법원, 또 집회자유 제한 - 경찰청 앞 시위금지 처분 ‘적법’ 판결
- 긴급체포 통신인 영장기각 - 김대중 주필 명예훼손 혐의
- 명예회복 특별법 금년 제정 - 의문사 진상규명, 인권위로
- 2면 · <특집> 세계인권선언, 그 의미와 현재 ⑤ 제5조 - 고문 금지!

**제1258호(98.11.26, 목)**

**/ 297**

- 1면 · 에바다 사태 2년 경과 - 비리재단 버티고 ... 농아원생들 지치고
- “협조원이 누군가” - 영남위 수사관 증인신문

· 경찰, 또 출판사 털기 - 『일보...』 등 압수, 직원 구속

- 2면 · <특집> 세계인권선언, 그 의미와 현재 ⑥ 제 6·7·8조 - 법 앞에 평등

**제1259호(98.11.27, 금)**

**/ 299**

- 1면 · 전향서 내도 보안관찰 - “범죄 위험 있다” 막연한 추측
- “약자 방치, 국가임무 포기” - ‘시민행동’, 복지권리선언 발표
- 동성에 서적도 이적표현물?
- 2면 · <특집> 세계인권선언, 그 의미와 현재 ⑦ 제9·10·11조-제멋대로 잡아가지 마라!

**제1260호(98.11.28, 토)**

**/ 231**

- 1면 · 명동성당, 농성장 강제철거
- 털린 출판사, 모두 구속
- 교육운동연대회의, 학생인권선언 시안 비판
- 2·3면 · 98년 11월분 총목차(1241호-1260호)

**제1261호(98.12.1, 화)**

**/ 307**

- 1면 · 국보법 50년 종지부 찍자 - 유엔도 거둬 비판, 정부입장 요지부동
- 오만과 욕심에 사로잡힌 법무부 - 국가인권위 장악 의도 안 버려
- 2면 · 세계인권선언 50돌 기념 - 영화제·심포지엄·음악회 등 행사 다채
- 주간인권호름 (11월 23일 ~11월 29일)

**제1262호(98.12.2, 수)**

**/ 309**

- 1면 · 국회 앞에서 국보법 장례식 - 35개 국제인권단체 연대성명 보내
- 국보법 전력, 명예회복 제외 - 국민회의, 특별법 초안공개

- 2면 · <특집> 세계인권선언, 그 의미와 현재 ⑧ 제12·13조-“나만의 세계...”  
· <내가 본 인권선언> 김삼석(보안관찰처분자)-“인권선언은 태평양을 건너오지 못해”

**제1263호(98.12.3, 목) / 311**

- 1면 · 인천연합 지역위원장 연행 - 서울경찰청, 마구잡이 압수수색  
· 국보법 철폐 5백인 선언 - 부산지역, 시민·사회·노동단체  
· IMF 1년, 돌아본 우리모습
- 2면 · <특집>세계인권선언, 그 의미와 현재 ⑨ 제 14·15조-“난민에게 피난처를!”

**제1264호(98.12.4, 금) / 313**

- 1면 · 공안당국 발길 바빠졌다 - 민족사랑청년노동자회 회원 9명 연행  
· 법무부 - 국가인권기구 무력화, 특검제 반대, 준법서약 도입  
· 민변, 긴급감청제 폐지 요구 - 통신보호법 개정 의견 제출
- 2면 · <특집>세계인권선언, 그 의미와 현재 ⑩ 제16·17조-“평등한 결혼의 권리· 재산권”  
· <내가 본 인권선언> 김종서(배재대 교수) - 두 가지 재산권과 국가의 의무

**제1265호(98.12.5, 토) / 315**

- 1면 · ‘약물주사 쇼크사’ 의혹 - 전주교도소 재소자 사망사건 파문  
· ‘인권위 독립성’ 거듭 강조 - 앰네스티, 법무부 수정안 비판  
· 국보법 영장 또 기각 - 인천연합 김국래 씨 석방
- 2면 · <특집> 세계인권선언, 그 의미와 현재 ⑪ 제18·19조-“생각과 표현은 자유”  
· <내가 본 인권선언> 김영식(통신연대) - 뉴미디어의 등장과 표현의 자유

**제1266호(98.12.8, 화) / 317**

- 1면 · 인권법 상정 초읽기 - ‘인권위 독립성’ 여부, 대통령 결단 내릴 듯  
· “재소자 사망 의혹규명” - 전주교도소에 공개질의  
· 교도소·농성단 단식 잇따라 - “양심수 석방, 국보법 철폐” 요구
- 2면 · 인권영화제 성황리 개막 - <칠레전투> 등 만원사례, 10일 폐막식  
· 주간인권호름(11월 30일~12월 6일)
- 3면 · <특집>세계인권선언, 그 의미와 현재 ⑫ 제20·21조-“정치는 우리 의사대로”

**제1267호(98.12.9, 수) / 320**

- 1면 · 인권위 올바로 만들어라 - 사회원로 12명, 대통령 앞 건의문 발표  
· “박상천 장관 용퇴하라” - 국민승리21, 여의도에서 규탄집회  
· 여야 의원 “인권위 독립기구로” - 자민련 의원은 법무부지지  
· ‘세계인권선언’과의 만남 -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 토론회
- 2면 · <특집>세계인권선언, 그 의미와 현재 ⑬ 제22조 - “사회적 안전망은 필수!”

**제1268호(98.12.10, 목) / 322**

- 1면 · 군사독재의 망령 아직까지 - 20년 고문후유증 앓다 투신자살  
· 민청노회 회원들 장시간 수사에 고통호소 - 풀려난 회원들도 재연행 수사  
· “인권법 재야의견 수렴” - 인권법 발표 미뤄질 듯
- 2면 · <특별기고> 세계인권선언 50돌을 맞아 ① 인권보장의 주춧돌(장호순 교수)  
· 인권영화제 또 ‘사전심의’ 시비  
· 인권영화제 지역 상영일자
- 3면 · <특별기고> 세계인권선언 50돌을 맞아 ② 세계인권선언 반세기(이석태)

제1269호(98.12.11, 금)

/ 325

- 1면
  - 양심수 등 단식농성 계속돼 - “국보법 철폐, 양심수 석방” 한 목소리
  - 삶터에서 내몰리는 영세민들
  - “오늘이 무슨 날인지도 모르나?” - 대학교수, 불법검문 곤욕
- 2면
  - 단식하던 양심수 실신 - 의정부 교도소
  - 병역면제자 죄인취급 - 합동수사본부 밤샘조사까지
  - 이주노동자 비준 촉구 - 외국인 노동자 캠페인 벌여
  - “준법서약 위헌이다” - 8·15 출소자 25명 헌법소원
  - ‘인권의 날’ 요구 봇물 - 민주노총 등 각계성명
- 3면
  - <특집> 세계인권선언, 그 의미와 현재 ⑭ 제23·24조- “일하는 것은 권리”
  - <내가 본 인권선언> 박성인 - 1998년, ‘시장’ 논리에 압살된 ‘노동권’

제1270호(98.12.12, 토)

/ 328

- 1면
  - 20대 청년 가혹수사 의혹 - ‘조직폭력배’ 혐의 ... 본인은 부인
  - 전국 동시다발 민중대회 - 정리해고 중단 등 5대 요구 제시
  - 동티모르 인권상황 악화 - 재판없는 처형·실종 잇따라
- 2면
  - <특집> 세계인권선언, 그 의미와 현재 ⑮ 제 25조 - 인간답게 살 권리!
  - <내가 본 인권선언> 김중렬(환경운동연합) - 생명이 갖는 권리

제1271호(98.12.15, 화)

/ 330

- 1면
  - 비장애 어린이 농아원 수용 - 예바다, 보조금 수령·가족 인도 요청 거부
  - 국민 건강도 ‘시장경제’논리에? - 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 결정
- 2면
  - 양심수 단식농성 정리 - 옥중 단식 불상사도 따라
  - 민중대회, 또 경찰폭력 물의 - 시위참가자 부상·연행 잇따라

· 주간인권흐름(12월7일~12월13일)

제1272호(98.12.16, 수)

/ 332

- 1면
  - ‘민간사찰 부활’ 강력 비난 - 공안책임자 처벌·사찰카드 폐기 여론
  - 전교조 단식 돌입 - 교사 8만여 명 서명 동참
  - “중증장애인의 삶 외면하지 말라”-장애인단체, 장애인직업재활법 제정촉구
- 2면
  - <특집>세계인권선언, 그 의미와 현재 ⑯ 제26조 - 교육, 인간다운 삶의 기초!
- 3면
  - <성명서> 청년진보당 - 공안권력 지향하는 국민의 정부를 지탄한다
  - <성명서> 참여연대 - 국민의 정부의 국민사찰

제1273호(98.12.17, 목)

/ 335

- 1면
  - 구조조정이 사람잡네 - 산업안전보건법 개악 우려
  - ‘인권의 사각지대’ 베일을 벗긴다 - 전국이래 최대 ‘감옥실태조사’ 공개
  - 사이버권리 백서 발간
- 2면
  - <특집>세계인권선언, 그 의미와 현재 ⑰ 제27조 - 문화·과학, 함께 즐겨요!
  - <내가 본 인권선언>오병일(진보네트워크센터) - 지적재산권과 문화적 권리
- 3면
  - 군 관련 의문사 사건일지 - 유가협측 진상규명 대상자 명단
  - 경찰·안기부·기업 관련 의문사

제1274호(98.12.18, 금)

/ 338

- 1면
  - 법원, 보안관찰 취소 판결 - 사노맹 관련 출소자...울 들어 두 번째
  - 민간사찰 대응 본격화 - 민변 등 정보공개 청구
  - “반인권적 이라크 공습 중단하라” - 국내 민간단체 비난 성명
- 2면
  - <특집>세계인권선언, 그 의미와 현재 ⑱ 제 28·29·30조 - 소중한 권리,

**제1275호(98.12.19, 토) / 340**

- 1면 · 금속연맹, 국민회의 농성돌입 - “빅딜, 재벌엔 특혜·노동자엔 고통”
- 인간복제 규제 촉구 - 환경·사회·종교단체 시위
- 금요시위 2백회 맞아 - SOFA 등 여전히 현안으로

**제1276호(98.12.22, 화) / 341**

- 1면 · 한국감옥 인권실태 공개 - 국제기준 턱없이 미달...출소자 설문종합
- “반국가 혐의 철회” 촉구 - 28,9일 영남위사건 결심
- 2면 · <특집> ‘세계인권선언...’을 마치며 - 선언 50주년, 산적한 과제
- 주간인권흐름(12월14일~12월20일)
- 3면 · <인권시평> 여기는 전투지대, 평화의 교실을 꿈꾸며(류은숙)

**제1277호(98.12.23, 수) / 344**

- 1면 · 노사정합의 기만이였다 - 노동자만 피해 ... 정·관·재계 부담 실종
- 국보법 또 보란 듯이 - 동의대생 7조 위반 혐의 구속 발표
- 동성에 서적도 이적표현물?
- 2면 · 조선일보 장애인 비하 - 장애인단체, 공식사과 촉구
- “범죄대응 극약화” 우려 - 정부, 마약사범 사형적용 방침
- 실업자동맹 준비위 결성 - 99년 상반기, 정식조직 출범
- 98년 전북지역 인권 10대 뉴스 - <평화와 인권> 선정

**제1278호(98.12.24, 목) / 346**

- 1면 · ‘국보법 전력’ 강단서 쫓겨나 - 교육부 등, 일선 대학에 압력
- 틈만 나면 한총련 연행사태 잇따라
- 2면 · 보안관찰대상자 계속된 수난 - 출소신고 불이행 이유, 체포 후 석방
- 민주노총 20개 산별연맹 위원장, 국회 앞서 무기한 단식
- 변협, 97년 인권보고서 발간
- 열사력 판매
- <만화사랑방> DJ와 양심수

**제1279호(98.12.25, 금) / 348**

- 1면 · “아빠를 선물로 보내주세요”, 양심수 자녀들의 성탄절 소원
- 검찰 ‘북 연계’ 억지주장 - 민애청 첫 공판
- “공습지지는 학살 방조”, 이라크 공습 규탄대회
- “노사정위 미련없다” - 24일 국회앞, 캐롤 대신 투쟁가
- 2면 · <요약> 국보법 관련, 유엔인권이사회 결정문 - “국제조약 위반”

**제1280호(98.12.29, 화) / 350**

- 1면 · 박경순 씨 무기구형, 검찰 ‘영남위’에 반국가단체 적용
- ‘노사정합의 이행’ 촉구, 여의도 범국민대회
- 2-4면 · <인권하루소식> 독자가 뽑은 ‘98 10대 인권뉴스
- 5면 · 만화로 되돌아본 98년 한국의 인권

### 만화로 되돌아본 98년 한국의 인권



# 인권하루소식

## 합본 11호 색인

### (제1157호 - 제1280호)

## 찾아보기

1. 경찰·안기부/고문 및 가혹수사  
- <경찰폭력> <안기부> <정치·민간사찰> <총기남용> / 359
2. 양심수- <준법서약서> <특집-양심수 문제, 이제는 끝내야 한다> / 360
3. 국가보안법 - <관악노동청년회> <국제사회주의자그룹> <동아대 간첩단 사건> <문규현신부 구속사건> <민족사랑청년노동자회> <민족통일애국청년회> <안양민주화운동청년연합> <영남위원회 사건> <조선일보 매카시즘> <진보민중청년연합> <기타 조직사건> / 363
4. 보안관찰법 / 367
5. 집회 및 시위, 표현의 자유 - <불심검문> / 368
6. 사생활침해 - <전자주민카드> / 368
7. 정보통신의 자유 - <도청·감청> / 369
8. 과거청산- <4·3항쟁> <5·18> <민족민주열사·희생자/유가협·추모단체연대회의> <의문사> <일본군 위안부> / 369
9. 국가인권위원회 / 371
10. 감옥의 인권 - <가혹행위> <교도소 사망사건> <의료> <조세형 사건> <청송교도소> <페스카마호사건/사형제도> / 372
11. 사회복지 - <양지마을> / 374
12. 건강권 - <국립목포결핵병원> / 376
13. 주거권(철거민) - <다원건설> <도원동 사건> / 376
14. 노동  
- <고용> <노숙자> <만도기계> <노사정위원회> <민주노총> <비정규직 노동자> <산업재해> <실업·해고> <여성노동자> <재벌문제> <전교조> <한국타이어> <현대자동차> / 377
15. 이주노동자(외국인노동자) / 381
16. 빈민·노점상 / 382
17. 여성 / 382
18. 장애인 - <에바다농아원> / 382
19. 동성애자 / 382
20. 대학 - <한총련/한총련 수배자> / 383
21. 청소년 - <학생인권선언> / 384
22. 환경 / 384
23. 평화 - <21세기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 국제학술대회> <대인지뢰> / 384
24. 북한 - <탈북자> / 385
25. 주한미군 - <한미행정협정> / 385
26. 국제인권소식 - <동티모르> <유엔인권위원회> / 386

27. 민간단체 - <국제인권단체> <대한변호사협회> <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> <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> <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> <유가협·추모단체연대회의>→<과거청산> <인권운동사랑방/인권영화제> <전북 평화와 인권연대> <진보네트워크> <천주교인권위원회> <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> <한국여성단체연합> <한국인권단체협의회> / 386

28. 고정란 - <사랑방만평> <월목차> <인권간행물> <인권시평> <인권영화> <주간인권흐름> <특집: 세계인권선언, 그 의미와 현재> / 390

29. 기타 - <세계인권선언 50주년> <신자유주의와 IMF/서울국제민중회의> <인권영화제> / 394

※ 인권10대 뉴스·<인권하루소식> 독자가 뽑은 '98 10대 인권뉴스/98.12.29 2-4 1280

# 찾아보기: 년-월-일-면-호수-쪽

예) "사법연수생.../98.7.3 2 1159/ 63"

- 98년 7월 3일자(1159호) 2면 기사, 합본호 63쪽

## 1. 경찰·안기부/고문 및 가혹수사

- 사법연수생 충격적 고백 - "검찰 내 가혹행위 수차례 목격"/98.7.3 2 1159 / 63
- 법원, 고문경관 이근안 소재탐지 명령/98.7.4 1 1160 / 64
- 경찰의 편익, 시민의 불편 - 시위 빌미로 버스정류장까지 폐쇄/98.7.16 1 1168 / 81
- 경찰청장 고발한 재야인사 명예훼손 혐의로 체포/98.10.2 2 1222 / 218
- 총격요청 피의자 가족들이 밝힌 고문의혹/98.10.13 1 1226 / 225
- "한나라당 반성은 없나" - 고문·총격요청 의혹 분리 규명해야/98.10.13 1 1226 / 225
- 군사독재의 망령 아직까지 - 20년 고문후유증 앓다 투신자살/98.12.10 1 1268 / 322
- 20대 청년 가혹수사 의혹 - '조직폭력배' 혐의...본인은 부인/98.12.12 1 1270 / 328

### <경찰폭력>

- '집회의 자유' 없는 나라 - 경찰, 행사끝난 고려대 계속 봉쇄/98.8.5 1 1181 / 116
- 경찰, 구사대 폭력방치/98.8.8 1 1184 / 123
- 경찰, 항의방문 간 사람까지 연행/98.9.2 1 1200 / 165
- 전북 경찰, 사제복 입은 신부 폭행/98.9.29 1 1219 / 208
- 평화행사에 또 곤봉세례 - 경찰, '98 노동자문화제 원천봉쇄/98.10.20 1 1231 / 236
- 민중대회, 곤봉·방패 세례 - 해산 중인 시민·대학생 연행/98.11.10 1 1246 / 271
- 민중대회 경찰폭력 규탄 - 청년진보당 등 항의집회/98.11.13 2 1249 / 279
- 무단횡단 시민 18시간 경찰서 유치 - 국가상대 1천만원 배상청구/98.11.19 1 1253 / 286
- 민중대회, 또 경찰폭력 물의 - 시위참가자 부상·연행 잇따라/98.12.15 2 1271 / 331

### <안기부>

- <해설> '거주이전 자유' 자의적 제한/98.7.30 1 1177 / 104
- 찍히면 발목인다 - 안기부, 재야인사 출국봉쇄/98.7.30 1 1177 / 104
- 재야운동가 간첩 혐의 안기부 연행/98.9.19 2 1213 / 196

· 김형찬 씨에 국가배상 판결 - 안기부 불법체포 인정/98.10.15 1 1228	/ 229
· 김형찬 씨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문/98.10.28 2 1237	/ 250
· 경찰·안기부·기업 관련 의문사/98.12.17 3 1273	/ 337

<정치·민간사찰>

· 경찰, 정치사찰 의혹-청년진보당, 재발방지 사과문 받아/98.8.25 1 1194	/ 147
· 사회단체 도난사건 잇따라 - “특수목적의 계획된 범죄” 추정/98.11.13 2 1249	/ 279
· <성명서>국민의 정부의 국민사찰(참여연대)/98.12.16 3 1272	/ 334
· <성명서>공안권력 지향하는 국민의 정부를 지탄한다(청년진보당)/98.12.16 3 1272/ 334	/ 338
· 민간사찰 대응 본격화 - 민변 등 정보공개 청구/98.12.18 1 1274	/ 338

<총기남용>

· 사람잡는 총기사용 남발 - 경찰 총에 또 범죄용의자 사망/98.10.21 1 1232	/ 239
· 총기사용 이제 그만 -인권협, 경찰청 앞 시위/98.10.23 1 1234	/ 243
· <광고> 총기 피해자 민사소송 함께 합니다/98.11.24 2 1256	/ 293

2. 양심수

· 양심수 석방, 개혁의 출발 - 천주교, 양심수 석방운동 본격 시동/98.7.7 1 1161	/ 66
· 한국교회여성연합회, 여성양심수 석방 촉구/98.7.7 1 1161	/ 66
· 14개 종교·인권단체 기자회견 - 8·15사면, 인권외지 시금석/98.7.14 1 1166	/ 76
· 주교회의, 양심수 석방 탄원/98.7.15 1 1167	/ 79
· 민가협, ‘양심수 석방’ 캠페인 돌입 - 3일간 하루 감옥체험도/98.7.21 2 1170	/ 90
· 여성 양심수 감옥 안 고통 호소 - 아파도 참을 수밖에/98.7.24 1 1173	/ 95
· 목요집회, 양심수 편지 소개 - 그리움 깊어도 양심은 지키고파/98.7.31 2 1178	/ 107

· <성명서> 모든 양심수를 조건없이 석방하라/98.8.4 2 1180	/ 115
· 양심수 석방을 위한 캠페인 ‘98 양심수가 없는 나라’/98.8.5 2 1181	/ 117
· ‘98 양심수 석방을 위한 캠페인’ 돌입/98.8.7 2 1183	/ 121
· 전북지역에서도 양심수 캠페인 전개/98.8.7 2 1183	/ 121
· 기독교계, 양심수 석방 촉구 - 미국·일본에서도 서한/98.8.8 1 1184	/ 123
· ‘감옥체험’ 동참한 각계 인사들/98.8.8 2 1184	/ 124
· 평화와 인권연대, “양심수 석방·국보법 철폐” 촉구 집회/98.8.13 1 1187	/ 130
· <인터뷰> 박래군(구국전위 사건) “양심수들 고통·고민 컸다”/98.8.14 2 1188	/ 133
· <8·15특사> 양심수 94명 석방 - 비전향장기수 17명 제외/98.8.14 1-3 호외	/ 132
· 장기수 금재성 씨 운명, 보라매병원서 영결식/98.8.18 1 1189	/ 137
· 포장만 화려한 8·15 특사, 풀려난 양심수도 족쇄 여전/98.8.18 1 1189	/ 197
·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, 추가사면 요청-김대중 대통령 면담 예정/98.8.19 1 1190	/ 139
· 보랏빛 수건, 다시 거리로-미석방 양심수 가족들, 배신감 표출/98.8.21 2 1192	/ 144
· <특별기고> “양심수에게 사면은 없다” - 김도형 (변호사, 민변)/98.8.25 3 1194	/ 149
· “인권대통령 자질미비”-재야, 양심수 정책 전환 촉구/98.8.27 1 1196	/ 152
· 민가협 집계, 양심수 4백2명 가운데 국보법 구속자가 2/3 차지/98.9.1 2 1199	/ 164
· “양심이 탄압받지 않는 사회” - 양심수 전원석방 촉구/98.9.3 1 1201	/ 168
·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방한, 한국 인권상황 개선 촉구할 듯/98.9.9 1 1205	/ 177
· <국제앰네스티 권고사항> 한국 인권상황 오히려 악화/98.9.12 2 1208	/ 184
· 김 대통령 방일에 양심수 추가석방 기대 - 재일 인권단체 탄원/98.10.8 1 1223	/ 219
· 명동성당 단식농성 돌입 - “양심수 처우 악화” 주장/98.10.30 1 1239	/ 253
· <레드헌트> 사건, 서준식 씨 공판 재개/98.11.11 1 1247	/ 274
· 교도소·농성단 단식 잇따라 - “양심수 석방, 국보법 철폐” 요구/98.12.8 1 1266	/ 317
· 양심수 등 단식농성 계속 - “국보법 철폐” 한 목소리/98.12.11 1 1269	/ 325
· 단식하던 양심수 실신 - 의정부 교도소/98.12.11 2 1269	/ 326



- 양심수 단식농성 정리 - 옥중 단식 불상사도 따라/98.12.15 2 1271 / 331
- “아빠를 선물로 보내주세요”, 양심수 자녀들의 성탄절 소원/98.12.25 1 1279 / 348

<준법서약서>

- 사상전향제 오히려 강화 - 법무부, 양심수에 ‘준법서약’ 받기로/98.7.2 1 1158 / 60
- “준법서약도 사상전향”, 양심수 가족 분통/98.7.3 2 1159 / 63
- 사상전향제도의 역사/98.7.3 2 1159 / 63
- <발언록> 박상천 법무부장관 - “준법서약, 석방 필수조건”/98.7.15 2 1167 / 80
- “개구멍으론 나갈 수 없다”, ‘준법서약’ 양심자유 침해 확인/98.7.29 2 1176 / 103
- <인터뷰> 박래군(구국전위 사건) “양심수들 고통·고민 컸다”/98.8.14 2 1188 / 133
- 싸네 엠네스티 총장, 준법서약 폐지 등 촉구/98.9.11 1 1207 / 181
- 장기수 조상록 씨 단식후유증 앓아, 준법서약 항의 단식 전개/98.9.25 2 1217 / 205
- 8·15 출소자 2명, 준법서약제 철폐 촉구 농성/98.9.26 2 1218 / 207
- 민권공대위, “재수감 압력 중단” 요구 - /98.10.2 1 1222 / 217
- “재수감 두렵지 않다” - 당국 압력 속 준법서약 철회투쟁/98.10.2 1 1222 / 217
- 명동농성 ‘재수감’ 경고 - 경찰, 준법서약 폐지투쟁 중단 요구/98.10.10 2 1225 / 224
- 준법서약 속셈 보인다 - 당국, 명동성당 농성자 연행 시도/98.10.16 1 1229 / 231
- <인터뷰> 준법서약 철폐 농성단 송계호 씨/98.10.24 2 1235 / 246
- 8·15 출소자 16명 준법서약제 철폐 촉구/98.11.10 1 1246 / 271
- 법무부, 국가인권기구 무력화, 특검제 반대, 준법서약 도입/98.12.4 1 1264 / 313
- “준법서약 위헌이다” - 8·15 출소자 25명 헌법소원/98.12.11 2 1269 / 326

<특집-양심수 문제, 이제는 끝내야 한다>

- ① 김대중 정권, 차별화 의지 보일 때/98.8.7 3 1183 / 122
- ② ‘문민정부’ 이전의 구속자들/98.8.8 2 1184 / 124

- ③ ‘김대중 정권’의 양심수/98.8.11 1 1185 / 125
- ④ 감옥으로부터의 편지/98.8.12 2 1186 / 129
- ⑤ (끝) 국보법 7조부터/98.8.14 1 1188 / 132

3. 국가보안법

- 진보단체 탄압에 각계 단체 공동대응 - “이적규정 취소않겠다”/98.7.1 1 1157 / 57
- “김대중, 과거 답습” - AI, 공안탄압 중단 촉구/98.7.25 1 1174 / 97
- 잠수함 의혹제기 무죄, 윤석진 씨 항소심 재판/98.8.13 2 1187 / 131
- <특집> 양심수 문제, 이제는 끝내야 한다 ⑤ 국보법 7조부터/98.8.14 1 1188 / 132
- 엠네스티, 김 대통령 만나 “국보법 유감” 표명/98.9.10 2 1206 / 180
- 연좌제 연루 차정원 씨, 최종 승소/98.9.16 1 1210 / 188
- 재야운동가 간첩 혐의 안기부 연행/98.9.19 2 1213 / 196
- 민권공대위, 국보법 철폐 백만인서명운동 돌입/98.9.25 1 1217 / 204
- 경찰, 범민족대회 참가 관련 박정기 씨 소환 조사/98.10.10 2 1225 / 224
- “국보법 폐지” 의견 72% - 전국 52개 대학 8백25명 설문조사/98.10.13 2 1226 / 226
- 희망새 대표 집행유예 - 범민족대회 공연 혐의/98.10.15 2 1228 / 230
- 김양무 씨 직장암 사경 - 국보법 위반 혐의 수감중/98.10.16 1 1229 / 231
- 말레이시아, ‘보안법’ 철폐 시위 - 인권운동가 등 1백여 명 연행/98.10.21 1 1232 / 239
- 직장암 재소자 김양무 씨 구속집행정지 허가/98.10.21 2 1232 / 240
- 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, 국보법 위헌제청 신청/98.10.23 1 1234 / 243
- <요약> 국가보안법 위헌여부심판제청 신청/98.10.23 2 1234 / 244
- 부산에서도 국보법 철폐 운동 - 지역 사회단체 연대기구 구성/98.10.29 1 1238 / 251
- 전노운협 이적혐의 벗어 - 대법원 ‘면소판결’ 확정/98.10.29 1 1238 / 251
- 경찰, 또 출판사 털기 - 『일보전진...』 등 압수, 직원 구속/98.11.26 1 1258 / 297

· 동성애 서적도 이적표현물?/98.11.27 1 1259	/ 297
· 톨린 출판사, 모두 구속/98.11.28 1 1260	/ 301
· 국보법 50년 종지부 찍자- 유엔도 거둬 비판, 정부입장 요지부동/98.12.1 1 1261	/ 307
· 국보법 전력, 명예회복 제외 - 국민회의, 특별법 초안공개/98.12.2 1 1262	/ 309
· 국회 앞에서 국보법 장례식 - 35개 국제인권단체 연대성명 보내/98.12.2 1 1262	/ 309
· 인천연합 지역위원장 연행 - 서울경찰청, 마구잡이 압수수색/98.12.3 1 1263	/ 311
· 국보법 철폐 5백인 선언 - 부산지역, 시민·사회·노동단체/98.12.3 1 1263	/ 311
· 국보법 영장 또 기각 - 인천연합 김국래 씨 석방/98.12.5 1 1265	/ 315
· 교도소·농성단 단식 잇따라 - “양심수 석방, 국보법 철폐” 요구/98.12.8 1 1266	/ 317
· 양심수 등 단식농성 계속돼 - “국보법 철폐” 한 목소리/98.12.11 1 1269	/ 325
· 국보법 또 보란 듯이 - 동의대생 7조 위반 혐의 구속 발표/98.12.23 1 1277	/ 344
· ‘국보법 전력’ 강단서 쫓겨나 - 교육부 등, 일선 대학에 압력/98.12.24 1 1278	/ 346
· <요약> 국보법 7조 박태훈 사건 유엔인권이사회 결정문/98.12.25 2 1279	/ 349

#### <관악노동청년회>

· 관노청, 항소심서도 유죄/98.8.20 1 1191	/ 141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

#### <국제사회주의자그룹>

· 국제사회주의자, 법정서 불법수사 폭로 - “환자도 밤샘수사”/98.7.8 2 1162	/ 69
· IS 관련자 항소심 법정구속 - 재판부, “반성없다” 판단/98.11.7 2 1245	/ 270

#### <동아대 간첩단 사건>

· 자백만으론 증거 안돼 - 동아대 간첩단 사건 무죄 판결/98.7.3 1 1159	/ 62
· <자료> 항소심 판결문 - 합리성 결여된 자백 불인정/98.7.16 3 1168	/ 83

#### <문규현 신부 구속사건>

· 문 신부 구속, 공안몰이 의혹-민간 대북화해 노력 찬물/98.8.29 1 1198	/ 158
· <자료> 8·15통일대축전 문규현 신부 연설 전문/98.9.2 2 1200	/ 166
· <자료>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방북 보고서/98.9.2 3 1200	/ 167
· 문규현 신부 구속사건에 대한 법률적 비판(김승환 전북대 교수)/98.9.5 2 1203	/ 173
· “통일축전 참석 불가피” - 문규현 신부, 첫 재판 열려/98.10.17 2 1230	/ 234
· 문규현 신부·강희남 목사 보석으로 풀려나 /98.10.22 1 1233	/ 241

#### <민족사랑청년노동자회>

· 공안당국 발길 바빠졌다 - 민족사랑청년노동자회 회원 9명 연행/98.12.4 1 1264	/ 319
· 구속자들 장시간 수사에 고통호소 - 풀려난 회원도 재연행/98.12.10 1 1268	/ 322

#### <민족통일애국청년회>

· 통일운동단체에 또 이적혐의 - 민족통일애국청년회 9명 체포/98.11.4 2 1242	/ 264
· 민애청 6명 영장 기각 - 경찰, 문건 이적성 집중 추궁/98.11.6 1 1244	/ 267
· “거둬진 소환, 생활 지장” - 대공분실, 민애청 2차 재소환/98.11.13 1 1249	/ 278
· 공안조작 항의집회 - 민애청 사건 관련/98.11.18 1 1252	/ 284
· 검찰 ‘북 연계’ 억지주장 - 민애청 첫 공판/98.12.25 1 1279	/ 348

#### <안양민주화운동청년연합>

· 안양시민, 안민청 석방호소/98.7.9 2 1163	/ 71
· 안민청 유죄 선고 - 김종박 씨 실형, 8명 집행유예/98.10.8 1 1223	/ 219

#### <영남위원회 사건>

· 또 다시 공안 칼바람 - 총파업 앞두고 조직사건 터져/98.7.23 1 1172	/ 93
--	------

· 확대되는 공안탄압, 울산시 동구청장 연행/98.7.24 2 1173	/ 96
· 부산·울산 조직사건 중간수사 발표-“한민전 지휘아래 활동”/98.7.25 1 1174	/ 97
· 부산·울산 조직사건, 각계 비판 여론 거세/98.7.28 1 1175	/ 99
· 시한부 인생까지 감옥행, 부모 구속 ... 아이는 ‘어린이집’으로/98.7.28 2 1175	/ 100
· 동포돕기 이적매도 비난 - ‘영남위원회’ 사건, 주민 반발 거세/98.8.4 1 1180	/ 114
· 반인륜적 용공조작 중단촉구 - 시민단체 기자회견/98.8.13 1 1187	/ 130
· 용공매도 이젠 그만, 경찰청 앞 항의집회/98.8.21 1 1192	/ 143
· “국가보안법 괴물 처치해 주세요”-부산·울산 구속자 자녀 호소/98.8.28 1 1197	/ 155
· 월간조선 매카시즘 준동, ‘부산·울산 사건’ 피의사실 불법 공포/98.9.1 1 1199	/ 163
· 영남위 사건, 전원 기소 - 대책위 “짜맞추기 사건” 비난/98.9.10 1 1206	/ 179
· 박경순 씨 한방치료 허용, 부산구치소 재소자 요구 수용키로/98.9.24 1 1216	/ 202
· ‘영남위사건’ 편파보도 월간조선 반론문 게재키로/98.10.10 2 1225	/ 224
· ‘영남위’ 구속자, 공소사실 모두 부인 - 피의자 몰래카메라 촬영 /98.10.14 1 1227	/ 227
· 수사 명목, ‘영남위’ 피의자 집 3년간 전화감청·촬영/98.10.15 2 1228	/ 230
· 영남위 구속자, 국보법 폐지 주장, 구속자 이은미 씨 건강 악화/98.10.20 2 1231	/ 237
· 구타·협박 등 강압수사 여전 - ‘영남위’ 구속자, 인권유린 주장/98.10.28 1 1237	/ 249
· 『월간조선』 편집장 고발 - 영남위 피의사실 유포혐의/98.11.7 2 1245	/ 270
· 국가안보 이유 비공개재판 - 영남위 사건, 재판중단 사태/98.11.11 2 1247	/ 275
· 비공개 재판 논란 - ‘영남위 사건’ 공판 또 연기/98.11.17 1 1251	/ 282
· “협조원이 누군가” - 영남위 수사관 증인신문/98.11.26 1 1258	/ 297
· “반국가 혐의 철회” 촉구 - 28, 9일 영남위사건 결심공판/98.12.22 1 1276	/ 341
· 박경순 씨 무기구형, 검찰 ‘영남위’에 반국가단체 적용/98.12.29 1 1280	/ 350

<조선일보 매카시즘>

· 월간조선 매카시즘 준동, ‘부산·울산 사건’ 피의사실 불법 공포/98.9.1 1 1199	/ 163
---	-------

· PC통신 ‘조선일보’ 난리 - 불매·폐간 서명운동 확산/98.10.16 2 1229	/ 232
· ‘진보인사 죽이기’ 전문가? - 이장희 교수 등도 여지없이 난도질/98.10.24 1 1235	/ 245
· “사실왜곡, 언론자유 아니다” - 조선일보 규탄 한 목소리/98.11.3 2 1241	/ 262
· 조선일보 비판 통신인 체포 - 김대중 주필, 명예훼손 고발/98.11.20 1 1254	/ 288
· 긴급체포 통신인 영장기각 - 김대중 주필 명예훼손 혐의/98.11.25 1 1257	/ 295

<진보민중청년연합>

· 진보민청 사건, 부부 구속 - 두돌박이 산하의 구치소 나들이/98.7.11 2 1165	/ 75
· 진보민청 첫 재판 열려/98.8.25 1 1194	/ 147
· “사회주의 지향=이적행위” - 진보민청 간부, 징역 4·5년 구형/98.10.17 2 1230	/ 234
· <요약> 최후진술 요지 - “우리는 진보를 꿈꿨을 뿐이다”/98.10.17 3 1230	/ 235
· 김봉태 의장 징역 2년, 진보민청 이적혐의 유죄선고/98.10.31 1 1240	/ 255

<기타 조직사건>

· 전학련 항소심, 원심확정/98.7.15 2 1167	/ 80
· 전북대 혁신대오 사건, 항소심서도 무죄/98.11.11 2 1247	/ 275

4. 보안관찰법

· 보안관찰대상자 잇단 검거 - 신고 거부한 김삼석·이혜정 씨 체포/98.11.14 1 1250	/ 280
· 전향서 내도 보안관찰 - “범죄 위험 있다” 막연한 추측/98.11.27 1 1259	/ 299
· 법원, 사노맹 관련 출소자에 보안관찰 취소 판결/98.12.18 1 1274	/ 338
· 보안관찰대상자 출소신고 불이행 이유, 체포 후 석방/98.12.24 2 1278	/ 347

## 5. 집회 및 시위, 표현의 자유

- 지난해 수원·안양 인권영화제 집행위, 음비법 위반 벌금형/98.7.28 1 1175 / 99
- '집회의 자유' 없는 나라 - 경찰, 행사끝난 고려대 계속 봉쇄/98.8.5 1 1181 / 116
- 경찰청 앞 집회 가능할까, 행정소송 심리 이달 끝나/98.9.17 1 1211 / 191
- 평화행사에 또 곤봉세례 - 경찰, '98 노동자문화제 원천봉쇄/98.10.20 1 1231 / 236
- 민중대회, 곤봉·방패 세례 - 해산 중인 시민·대학생 연행/98.11.10 1 1246 / 271
- 민중대회 경찰폭력 규탄 - 청년진보당 등 항의집회/98.11.13 2 1249 / 279
- 법원, 또 집회자유 제한 - 경찰청 앞 시위금지 처분 '적법' 판결/98.11.25 1 1257 / 295
- 민중대회, 또 경찰폭력 물의 - 시위참가자 부상·연행 잇따라/98.12.15 2 1271 / 331

### <불심검문>

- 공권력은 치외법권? - 경찰, 불법검문하고도 안하무인/98.8.5 1 1181 / 116
- 명동의 난폭자 '전투경찰', 불법검문 감시단 강제연행/98.8.7 2 1183 / 121
- '거부의 권리' 적극 제기해야, 불심검문 불복중운동 반년 평가/98.9.3 2 1201 / 169
- 불법검문 피해 대학생 5명, 국가배상 청구 /98.10.10 1 1225 / 223
- 불심검문 피해, 1백만원 배상 - 경북대생 국가 상대 소송 승소/98.10.22 1 1233 / 241
- 경찰청 정신 못 차렸다 - 불심검문 시비 "요령부족" 때문이라니/98.11.6 1 1244 / 267
- "오늘이 무슨 날인지도 모르나?" - 대학교수, 불법검문 곤욕/98.12.11 1 1269 / 325

## 6. 사생활침해

- "민간인 불법사찰, 국가배상"-대법원 확정 판결/98.7.25 1 1174 / 97
- 사회단체 도난사건 잇따라 - "특수목적의 계획된 범죄" 추정/98.11.13 2 1249 / 279
- 얼굴 없는 감시자 - 바코드·IC 카드 이용 노동자 통제/98.11.14 2 1250 / 281
- '민간사찰 부활' 파문 - 공안책임자 처벌·사찰카드 폐기 여론/98.12.16 1 1272 / 332

### <전자주민카드>

- '전자주민카드'에 목숨 건 행자부, 사업 강행 고집/98.7.31 1 1178 / 106
- "전자주민카드 포기하라" - 시민공대위, 행자부 입장 비판/98.9.26 1 1218 / 206

## 7. 정보통신의 자유

- 사이버권리 침해 신고접수, 검열·프라이버시 침해 등/98.9.22 2 1214 / 198
- 진보네트워크 접속 이상 - 한총련 홈페이지 문제삼아 차단/98.10.9 2 1224 / 222
- 조선일보 비판 통신인 체포 - 김대중 주필, 명예훼손 고발/98.11.20 1 1254 / 288
- 긴급체포 통신인 영장기각 - 김대중 주필 명예훼손 혐의/98.11.25 1 1257 / 295
- 사이버권리 백서 발간/98.12.17 1 1273 / 335

### <도청·감청>

- '영남위' 구속자, 공소사실 모두 부인 - 피의자 몰래카메라 촬영/98.10.14 1 1227 / 227
- 수사 명목, '영남위' 피의자 집, 3년간 전화감청·촬영/98.10.15 2 1228 / 230
- <본질 비켜가는 통신감청 논란> - 통신감청 근본적 통제 필요/98.10.22 2 1233 / 242
- <인권간행물> 「불법도청 '합법' 감청」 /98.10.28 1 1237 / 249
- "감청 제한 더 엄격히" - 시민단체,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요구/98.11.10 1 1246 / 271
- 민변, 긴급감청제 폐지 요구 - 통신보호법 개정 의견 제출/98.12.4 1 1264 / 313

## 8. 과거청산

### <4·3항쟁>

- 21세기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 국제학술대회 3주제: 냉전체제하의 양민학살의 실상/98.8.28

2·3 1197	/ 156
·아몰지 못한 전쟁의 상처 - '노근리 학살' 희생자 위령제 열려/98.7.30 2 1177	/ 105
·현 정권 과거청산 가능한가, 정치권·시민사회계 열띤 논쟁/98.9.2 1 1200	/ 165
·암흑의 23년 이제는 빛볼까 - 인혁당 사건 진상규명대책위 발족/98.11.10 2 1246	/ 272
·대구·경북, 인혁당 재조명 운동 - "빼앗긴 추모비부터 찾자"/98.11.13 1 1249	/ 278

<5·18>

·마지막 시민군 김영철, 18년간 광주항쟁의 한복판에/98.8.21 1 1192	/ 143
--	-------

<민족민주열사·희생자/유가협·추모단체연대회의>

·서울대, 열사들 명예졸업장 수여 보류, 의견수렴 미진 이유/98.7.8 2 1162	/ 69
·'열사 명예회복' 청신호, 범국민추진위 결성/98.8.4 1 1180	/ 114
·열사범추위 진상규명·명예회복 특별법안 발표 /98.9.1 2 1199	/ 164
·유가협 후원회 재건, 회장에 이해동 목사/98.9.12 1 1208	/ 183
·이제는 '진실·명예' 되찾자, 민족민주열사 추모주간 돌입/98.9.15 2 1209	/ 186
·유가협, 김 대통령 면담 - 특별법 제정 약속 받아/98.10.21 2 1232	/ 240
·'특별법 제정' 국회 앞 농성 - 유가협, 제13차 총회 개최/98.11.4 2 1242	/ 264
·유가협 국회앞 농성 돌입 - "올해 안 특별법 제정" 촉구/98.11.5 2 1243	/ 266
·<현장> 국회 앞 유가협 농성장 - "의사봉을 두드릴 때까지"/98.11.11 2 1247	/ 275
·<만화사랑방>유가협 농성/98.11.12 1 1248	/ 276
·유가협, 국민회의서 농성 - 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/98.11.21 1 1255	/ 290
·명예회복 특별법 급년 제정 - 의문사 진상규명, 인권위로/98.11.25 1 1257	/ 295
·국보법 전력, 명예회복 제외 - 국민회의, 특별법 초안공개/98.12.2 1 1262	/ 309
·열사력 판매/98.12.24 2 1278	/ 347

<의문사>

·김훈 중위, 자살? 타살? - 미국 법의학자, 타살 가능성 주장/98.9.4 2 1202	/ 171
·과잉진압·최루탄 난사 불법 - 법원, "이태춘 씨 사망 국가책임"/98.10.14 1 1227	/ 227
·<판결문 요약> 이태춘 씨 사망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/98.10.14 2 1227	/ 228
·최종길 씨 의문사 규명 촉구 - 73년 중앙정보부에서 변사/98.10.16 2 1229	/ 232
·전경·해군 의문사 잇따라 - '자살' 발표에 '의혹' 제기/98.11.5 2 1243	/ 266
·'철택 너머 인권사각지대'- 군대 자살사건 의혹 무성/98.11.18 1 1252	/ 285
·명예회복 특별법 급년 제정 - 의문사 진상규명, 인권위로/98.11.25 1 1257	/ 295
·군 관련 의문사 사건 일지 - 유가협측 진상규명 대상자 명단/98.12.17 3 1273	/ 337
·경찰·안기부·기업 관련 의문사/98.12.17 3 1273	/ 337

<일본군 위안부>

·위안부 전범재판 2천년 개최 - 정대협, 한국위원회 발족키로/98.11.20 1 1254	/ 288
--	-------

9. 국가인권위원회

·인권법 왜 숨어서 만드나, 민간단체 '공동추진위' 결성/98.9.18 1 1212	/ 193
·<인터뷰> 광노현 - "인권법 제정, 국민적 협의 필수"/98.9.18 2 1212	/ 194
·박상천 법무장관 국민대 특강, "인권위원회 독자적으로 설치"/98.9.18 2 1212	/ 194
·박 장관 "민간단체와 협의하겠다" - 민간단체 대표단과 면담/98.9.19 2 1213	/ 196
·<인터뷰> 최영도 변호사 - "법안 미공개는 국민에 대한 무례"/98.9.19 2 1213	/ 196
·밀실서 탄생한 '허수아비' 인권위, 법무부 인권법 시안 발표/98.9.26 1 1218	/ 206
·법무부 인권법 일방추진 - 각계 비판 모른척, 법무부 안 고집/98.10.17 1 1230	/ 233
·<브라이언 버드킨과의 '국가인권기구' 간담회 중계>	/ 240
·AI, 법무부 인권법 비판 - "국제기준 미달·약체 인권위 예상"/98.10.24 1 1235	/ 245

· 여성계, '인권 관련 국가기구' 토론/98.10.27 1 1236	/ 247
· <광고> 국가인권기구 공추위 홈페이지/98.10.27 1 1236	/ 247
· 민간단체, 인권위원회법 공개 - 사상·성적지향 등에 따른 차별 금지/98.11.7 2 1245	/ 270
· 명예회복 특별법 금년 제정 - 의문사 진상규명, 인권위로/98.11.25 1 1257	/ 295
· 오만과 욕심에 사로잡힌 법무부 - 국가인권위 장악 의도 안 버려/98.12.1 1 1261	/ 307
· 법무부 '인권의 걸림돌' - 국가인권기구 무력화, 준법서약 도입 등/98.12.4 1 1264	/ 313
· '인권위 독립성' 거듭 강조 - 엠네스티, 법무부 수정안 비판/98.12.5 1 1265	/ 315
· 인권법 상정 초읽기- '인권위 독립성' 여부, 대통령 결단 내릴 듯/98.12.8 1 1266	/ 317
· 여야 의원 "인권위 독립기구로" - 자민련 의원은 법무부 지지/98.12.9 1 1267	/ 320
· "박상천 장관 용퇴하라" - 국민승리21, 여의도에서 규탄집회/98.12.9 1 1267	/ 320
· 인권위 올바르게 만들어라 - 사회원로 12명, 대통령에 건의문/98.12.9 1 1267	/ 320
· "인권법 재야의견 수렴" - 인권법 발표 미뤄질 듯/98.12.10 1 1268	/ 322

## 10. 감옥의 인권

· 교도소에서도 타율학습 - 휴식시간 빼앗아/98.7.11 1 1165	/ 74
· 짐작만 못한 재소자-정원 2배 수용, 환자 '고통' 호소/98.8.26 1 1195	/ 150
· 춘천교도소 면회제한 물의, 양심수 3인 징벌방 수감/98.9.5 1 1203	/ 172
· 천륜 무시 교정행정 - 부친상당한 재소자, 장례 참가 불허/98.10.10 1 1225	/ 223
· 인도주의· 교정행정 충돌 - 재소자 귀휴 조치, 실질화 필요/98.10.15 2 1228	/ 230
· '책읽는 교도소' 말뿐인가 - 검열 불편 이유로 도서 반입 금지/98.11.3 1 1241	/ 261
· 현재 '인권의 보루' 맞나 - "교도소 신문기사 삭제 위헌 아니다"/98.11.6 2 1244	/ 267
· 교도소·농성단 단식 잇따라 - "양심수 석방, 국보법 철폐" 요구/98.12.8 1 1266	/ 317
· 단식하던 양심수 실신 - 의정부 교도소/98.12.11 2 1269	/ 326
· 양심수 단식농성 정리 - 옥중 단식 불상사도 따라/98.12.15 2 1271	/ 331

· '인권의 사각지대' 배일을 벗긴다 - 건국이래 최대 감옥실태조사/98.12.17 1 1273	/ 335
· 한국감옥 인권실태 공개 - 국제기준 턱없이 미달/98.12.22 1 1276	/ 341

## <가혹행위>

· 검·경·법원·감옥 합작 인권유린 - 누명 쓰고 3년 복역/98.7.10 1 1164	/ 72
· 안양교도소 출소자, "징벌 끝나고도 수감차고 생활"/98.7.25 2 1174	/ 98
· 춘천교도소 불법징벌 시비, "면담요구하자 시송시갑"/98.8.12 1 1186	/ 128
· 춘천교도소, 불법징벌 무마 위해 재소자 협박-건달징역 활개 의혹/98.8.20 2 1191	/ 142
· "재소자는 건의도 못해?", 광주교도소 불법 계구 사용/98.9.3 2 1201	/ 169
· 춘천교도소, 보복성 징벌 의혹 - 재소자 3명 한달간 징벌방 수감/98.9.8 1 1204	/ 174
· 춘천교도소 인권유린 실태보고 - 불법 계구사용, 재소자 청원 묵살/98.9.9 2 1205	/ 177
· 폭행 항의에 먹방 감금 - 의정부교도소, 교도관이 재소자 폭행/98.10.27 1 1236	/ 247

## <교도소 사망사건>

· '약물주사 쇼크사' 의혹 - 전주교도소 재소자 사망사건 파문/98.12.5 1 1265	/ 315
· "재소자 사망 의혹규명" - 전주교도소에 공개질의/98.12.8 1 1266	/ 317

## <의료>

· 여성 양심수 감옥 안 고통 호소 - 아파도 참을 수밖에/98.7.24 1 1173	/ 95
· 재소자 약 반입 불허 항의, 부산구치소 재소자 집단 단식농성/98.9.19 1 1213	/ 195
· 부산주례구치소 의료제한 파문 - 재소자 17명 5일째 단식투쟁/98.9.22 1 1214	/ 197
· 김양무 씨 직장암 사경 - 국보법 위반 혐의 수감중/98.10.16 1 1229	/ 231
· 영남위 구속자 이은미 씨 건강 악화/98.10.20 2 1231	/ 237

### <조세형 사건>

- 조세형 씨 보호감호처분 결심공판 - 살인사건 은폐 위해 업정독거/98.7.4 1 1160 / 64
- <조세형 씨 최후진술> “동료 죽음 알리려 2개월간 ‘난동’ 준비”/98.7.4 2 1160 / 65
- 법원, “조세형 씨 격리” 명령 - “갱생 노력 없었다” 이유/98.8.1 1 1179 / 111
- 근거 없는 ‘재범 우려’ - 조세형 씨에 대한 보호감호 처분 부당/98.11.4 2 1242 / 263

### <청송교도소>

- 청송교도소 공개 ‘전시용’ - 곁핼기 참관일정 등 문제/98.9.23 1 1215 / 200
- 준비된 개방, 의혹은 여전 - 청송 4개 교정시설 공개/98.9.29 1 1219 / 208
- 접대엔 안달, 공개엔 인색 - 취지 못 살린 청송교도소 공개/98.9.30 1 1220 / 210
- 인권단체, 법무부에 건의문 - “청송 개방 전시용” 비판/98.10.8 1 1223 / 219
- 교도소 개방 계속될 듯 - 법무부 교정국장, 인권단체 면담/98.10.9 1 1224 / 221

### <페스카마호 사건/사형제도>

- 전재천 씨 구명운동, 각계인사 서명 활발/98.7.7 1 1161 / 66
- <요약> 사형수 전재천 씨의 편지 - “지난날 돌이키며 반성”/98.7.7 2 1161 / 66
- <만화사랑방> 조선족 동포 사형수 전재천 씨/98.7.10 1 1164 / 72
- ‘전재천 씨 구명’, 탄원서 전달 - 부산지역 시민, 구명운동 동참/98.7.21 2 1170 / 90
- “범죄대응 극약화” 우려 - 정부, 마약사범 사형적용 방침/98.12.23 2 1277 / 345

## 11. 사회복지

- 자율과 개방 속의 평화 - 또 다른 부랑인 시설, ‘은평의 마을’/98.7.22 2 1171 / 92
- <복지부 자료> 전국 부랑인시설 실태조사 지시사항/98.8.6 1 1182 / 118
- 시설 수용자 보는 시각 바뀌야-인권포럼, 국가책임 지적/98.8.29 1 1198 / 158

- 정신보건법 개정 간담회, 정신질환자 인권개선 논의/98.9.16 2 1210 / 189
- 고양이에게 또 생선올? - 인권유린 시설 ‘구생원’, 사후처리 유감/98.10.1 1 1221 / 215
- “약자 방치, 국가임무 포기” - ‘시민행동’, 복지권리선언 발표/98.11.27 1 1259 / 299

### <양지마을>

- <속보> 부랑인 수용시설 양지마을 진상조사단 긴급 파견/98.7.16 1·2 호의 / 85
- 충격! 양지마을 - 허울만 복지시설, 실상은 강제노역장/98.7.18 1 1169 / 86
- <만화사랑방> 참혹한 양지마을/98.7.18 1 1169 / 86
- 양지마을의 불법 인권유린 실상 - “한국 국민이 아니라 노예입니다”/98.7.18 2 1169 / 87
- <특집> 육지위의 노예선 ‘양지마을’ ① 구타와 가혹행위/98.7.20 1 호의 / 88
- <특집> 육지위의 노예선 ‘양지마을’ ② 단속·심사, 기준도 없다/98.7.21 1 1170 / 89
- <특집> 육지위의 노예선 ‘양지마을’ ③ 퇴소, 하늘의 별따기/98.7.22 1 1171 / 91
- “부랑인들은 인권이 없나요?” - 시민들, ‘부랑인 강제수용’ 반대/98.7.23 2 1172 / 94
- 양지마을, 형사고발키로 - 민변 등 인권단체, 1차 조사결과 발표/98.7.23 2 1172 / 94
- 양지마을 파문 확대 - 검찰, 전국 부랑인시설 내사 착수/98.7.24 1 1173 / 95
- <특집> 육지위의 노예선 ‘양지마을’ ④ “그들도 인간이다”/98.7.24 2 1173 / 96
- <인권시평> ‘양지마을’ 그 아름다운 이름을 위해- 박래군/98.7.28 3 1175 / 101
- 양지마을 퇴소, 그후/98.7.30 2 1177 / 105
- 양지마을 감사결과 발표 - 보건복지부, 시설장 교체 등 지시/98.8.6 1 1182 / 118
- “노재중은 특수강도” - 민변 등 인권 3단체, 양지마을 고발/98.8.8 1 1184 / 123
- ‘복지시설 민간감시단’ 제안, 양지마을·송현원 보고대회 열려/98.9.15 1 1209 / 185
- 양지마을 퇴소자들, 정부에 사후대책 촉구/98.9.16 2 1210 / 189
- 양지마을 무대책 추궁 -복지부 국감, 신임이사장 부적격 질책/98.11.11 1 1247 / 274
- 정신 못 차린 보건복지부 - “이젠 양지마을 문제없다?”/98.11.12 1 1248 / 276

## 12. 건강권(의료)

- 분노하는 '커피아저씨' - 병원측, '바쁘다' 핑계 전라상태 환자방치/98.7.10 2 1164 / 73

### <국립목포결핵병원>

- 결핵대책위, 기획예산위 방문 - "병원 민간위탁, 공공성 저하"/98.7.14 2 1166 / 77
- 결핵환자, 일단 숨들려 - 보건복지부, 국립병원 유지 입장표명/98.7.29 1 1176 / 102
- 국가, 결핵환자 치료 포기하나 - 국립병원 민간위탁 방침 고수/98.11.12 2 1248 / 277
- 국민 건강도 '시장경제'논리에? - 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 결정/98.12.15 1 1271 / 330

## 13. 주거권(철거민)

- 알 권리 무시, 일방 공사 - 남양주 주민 가스기지 건설 반발/98.7.29 2 1176 / 103
- "갈 곳 없는 세입자" - 수원시 권선4지구, 강제철거/98.8.22 1 1193 / 145
- 서민 겨울나기에 철거 먹구름 - 의왕시 오전동 강제철거 몸살/98.10.14 2 1227 / 228
- 도시 서민들 위한 주택정책 절실 - 1가구 1주택 정책 정착돼야/98.10.27 2 1236 / 248
- 강제철거 되풀이, 주민·용역 충돌 - 수원 권선4지구 강제철거/98.10.30 2 1239 / 254
- 주거기본법 제정촉구, 주거연합·전철연 연대투쟁/98.10.31 1 1240 / 255
- 잠든 주민 끌어내고 싹쓸이, 경기도 의왕시 재개발지역 강제철거/98.10.31 1 1240 / 255
- 주거권 입법화 요구 고조 - 민간, "기본적 인권으로 보장" 촉구/98.11.7 1 1245 / 269
- 강제철거 앞장선 성북구청 - 대통령은 "강제철거 않겠다" 약속/98.11.14 1 1250 / 280
- <인권간행물> 『철거민이 본 철거-서울시 철거민 운동사』/98.11.20 1 1254 / 288

### <철거용역회사 다원건설(구 적준)>

- 재개발지역 무법자를 심판하라 - 사회단체, 다원건설 형사고발/98.7.15 2 1167 / 80
- 철거폭력업체 다원, 또 활약 - 서대문구 남가좌동 재개발지역/98.8.27 1 1196 / 152

- <인권간행물> 『다원건설(구 적준) 철거범죄 보고서』/98.11.12 2 1248 / 277

### <도원동 강제철서 사건>

- '사람'은 안중에 없는 재개발 - 도원동 철거민, 명드는 가슴/98.8.6 2 1182 / 119
- 도원동 주민 울분만 쌓여 - 전철연 의장 한때 연행/98.9.4 2 1202 / 171

## 14. 노동

- 성모병원노조 한판 승리 - 노동청, 노조출입보장 약속/98.7.8 1 1162 / 68
- AI, 파업 진압 자제 촉구/98.7.15 2 1167 / 80
- 고객돈으로 명퇴금 잔치? - 장은증권 노조, 진상규명 촉구/98.7.16 1 1168 / 81
- 시장주의적 구조조정 반대, 민교협·학단협 성명/98.7.16 2 1168 / 82
- 비난받는 '파업 탄압' - 국제엠네스티, 노동권 보장 촉구/98.7.24 1 1173 / 95
- <만화사랑방> 다양한 노동자 탄압/98.7.24 2 1173 / 96
- "약이야? 독이야?" - 청년진보당, 공기업민영화 철회 촉구/98.8.6 2 1182 / 119
- 한양공영 등, 이미 공권력 투입/98.8.18 2 1189 / 138
- "정치인부터 교통분담을"-범국민운동본부, 광화문 집회/98.8.22 1 1193 / 138
- 노동쟁의란? /98.9.8 1 1204 / 174
- 아남반도체도 경찰력 투입, 9일 새벽 노조원 39명 전원 연행/98.9.10 1 1206 / 179
- <만화사랑방> 김대중 정권과 노동현장 경찰력 투입/98.9.11 1 1207 / 181
- 생존권·시민권 동시 후퇴, 경제위기에 노동자 구속 급증/98.9.24 1 1216 / 202
- <기자수첩> '반국가사범 타령' - 은행 파업에 대한 정부 대응/98.9.30 1 1220 / 210
- 신세계 노조 설립 - 삼성에 파급여부 관심/98.10.9 2 1224 / 222
- '98 민중대회 열린다 -민중의지 집약, 10대 요구안 마련/98.10.15 1 1228 / 229
- 평화행사에 또 곤봉세례 - 경찰, '98 노동자문화제 원천봉쇄/98.10.20 1 1231 / 236



- 한국통신 대량징계 물의 - 노동자 '노조 길들이기' 반발/98.10.22 2 1233 / 242
- 민중대회, 곤봉·방패 세례 - 해산 중인 시민·대학생 연행/98.11.10 1 1246 / 271
- 민중대회 경찰폭력 규탄 - 청년진보당 등 항의집회/98.11.13 2 1249 / 279
- 전국 동시다발 민중대회 - 정리해고 중단 등 5대 요구 제시/98.12.12 1 1270 / 328
- 민중대회, 또 경찰폭력 물의 - 시위참가자 부상·연행 잇따라/98.12.15 2 1271 / 331
- 전교조 단식 돌입 - 교사 8만여 명 서명 동참/98.12.16 1 1272 / 332
- 구조조정이 사람잡네 - 산업안전보건법 개악 우려/98.12.17 1 1273 / 335

<고용>

- 고용계약제 급속히 확산-고용불안 갈수록 심각/98.7.8 1 1162 / 68
- 근로자 파견제 시행 - 이중착취, 노동권실종 우려/98.7.9 1 1163 / 70
- 현대 신입사원, 일방적 채용파기 맞서 투쟁/98.7.25 2 1174 / 98
- 고용보험 빈틈 많다 - 노동계, 고용보험법 재개정 촉구/98.10.23 1 1234 / 243

<노숙자>

- 서울시 '강제수용 만능주의', 노숙자 반발·인권침해 잇따를 듯/98.9.22 1 1214 / 197
- "노숙자 똥오줌은 안돼" - 서울역 심야 화장실 개방 거부/98.9.23 1 1215 / 200
- "잠자리보다 일자리다", 동절기 노숙자대책 수용일변도 비판/98.9.23 2 1215 / 201
- 서울역 화장실 야간 개방, 노숙자 요청 수용/98.9.25 2 1217 / 205
- 노숙자 1천8백명 쉼터 입소 - "희망없다" 입소 거부 상당수/98.11.13 1 1249 / 278

<만도기계 파업사태>

- 만도기계, 끝내 경찰력 투입 - 노동계 거센 저항 예상/98.9.4 1 1202 / 170
- 젓먹이 아이까지 무차별 진압, 만도기계 경찰 투입 현장/98.9.5 2 1203 / 173
- 만도 파업투쟁 지속, 현장에선 집회 명동에선 농성/98.9.10 1 1206 / 179

<노사정위원회>

- 노동자들, 노사정위 농성 - 부당노동행위 근절 촉구/98.7.11 1 1165 / 74
- 양노총, 노사정위 탈퇴/98.7.11 2 1165 / 74
- 민주노총, 노·정합의 이행 촉구/98.8.25 2 1194 / 148
- 정부, 노·정 합의 휴지취급 - 노동자들 힘겨운 싸움 계속/98.9.3 1 1201 / 168
- 남의 생계보단 내 집이 우선 - 노사정위원회, 경찰 개입 묵인/98.9.5 1 1203 / 172
- 노사정합의 기만 - 노동자만 피해...정·관·재계 부담 실종/98.12.23 1 1277 / 344
- "노사정위 미련없다" - 24일 국회앞, 캐롤 대신 투쟁가/98.12.25 1 1279 / 348
- '노사정합의 이행' 촉구, 여의도 범국민대회/98.12.29 1 1280 / 350

<민주노총>

- 투쟁만이 살길이다 - 15일 민주노총 총파업 돌입/98.7.16 2 1168 / 82
- 민주노총 5백만 서명운동, 일자리보장·재벌재산 환수 촉구/98.9.25 1 1217 / 204
- 고영주 사무총장 실행 선고 - 민주노총, '보복성 판결' 주장/98.10.27 2 1236 / 148
- '인권의 날' 요구 봇물 - 민주노총 등 각계성명/98.12.11 2 1269 / 326
- 급속연맹, 국민회의 당사 농성돌입 - "빅딜, 재벌엔 특혜·노동자엔 고통"/98.12.19 1 1275 / 340
- 민주노총 20개 산별연맹 위원장, 국회앞서 무기한 단식/98.12.24 2 1278 / 347

<비정규직노동자>

- "비정규직 노동자에 미래 달려" - 비정규직·정규직 연대 의식 확산/98.10.9 2 1224 / 222

<산업제해>

- 산재추방운동 10년 평가 토론회 - IMF 이후 산재위험 높아져/98.7.4 1 1160 / 64

<실업·해고>

- 한국여성노동자협회의 여성실업대책본부, 여성실업 대책 촉구/98.7.10 2 1164 / 73
- 해고통보, 임산부 유산 - 금속연맹, "총파업 불가피"/98.7.22 2 1171 / 92
- 범국민서명운동 돌입-재벌퇴진·실업대책 촉구/98.8.27 1 1196 / 152
- 정리해고 편집증에 빠진 사회 - "정리해고 반대 파업 불법 아니다"/98.9.8 1 1204/ 174
- 노조건설 이유로 '해고·대기발령', 청주 오리온 프리트레이 공장/98.9.9 1 1205 / 177
- 수배·실직자 딱한 처지, 명동성당 "농성자 철수" 요구/98.9.24 1 1216 / 202
- 청년실업자운동 항배 주목, 30개 대학 '특별위원회' 구성/98.9.25 2 1217 / 205
- 오리온 해고자 연행/98.10.29 2 1238 / 252
- 한계계층 실업자 생계보장 시급/98.11.12 1 1248 / 276
- 한국정부, ILO에 또 망신 - 실업자노조 인정 등 권고받아/98.11.24 1 1256 / 292
- 전국 동시다발 민중대회 - 정리해고 중단 등 5대 요구 제시/98.12.12 1 1270 / 328
- 실업자동맹 준비위 결성 - 99년 상반기, 정식조직 출범/98.12.23 2 1277 / 345

<여성노동자>

- 한국여성노동자협회의 여성실업대책본부, 여성실업 대책 촉구/98.7.10 2 1164 / 73
- 여성노동자, 3차 집회 개최 - 비정규직 악용 사례 등 보고/98.10.1 2 1221 / 216
- '결혼임신퇴직제 부활' - 여성노동자 차별 심화/98.10.29 2 1238 / 252

<재벌문제>

- 범국민서명운동 돌입-재벌퇴진·실업대책 촉구/98.8.27 1 1196 / 152
- 민주노총 5백만 서명운동, 일자리보장·재벌재산 환수 촉구/98.9.25 1 1217 / 204
- 금속연맹, "빅딜, 재벌엔 특혜·노동자엔 고통"/98.12.19 1 1275 / 340

<전교조>

- '상록수' 가르쳤다고 파면-영신여실고, 전교조 교사 탄압/98.8.21 2 1192 / 144

<한국타이어>

- 한국타이어 인권유린 고발 - 김동진 기자 선고유예/98.7.2 2 1158 / 61

<현대자동차>

- 해고가 빚은 가정파괴 - 현대자동차, 무리한 해고통지서 전달/98.7.28 1 1175 / 99
- 안중에도 없는 가족 인권 - 현대자동차, 정리해고 물의/98.8.5 2 1181 / 117
- 정리해고 속셈 탄 곳에 - 현대자동차, 노조측 대안·협상요청 무시/98.8.7 1 1183/ 120
- "공권력 투입, 할테면 해봐" - 노동자 가족대책위, 결사투쟁 선언/98.8.13 2 1187 / 131
- 공권력투입 방침, 울산 긴장고조 - 사회각계, 평화해결 촉구/98.8.18 2 1189 / 138
- "공권력 투입 안된다" 각계인사, 현대 사태 평화적 해결 촉구/98.8.19 1 1190 / 139
- <현장스케치> 현대자동차 울산공장, "깨지더라도 끝까지"/98.8.20 1 1191 / 141
- <인터뷰> 현대자동차 가족대책위 대표 이영자 씨/98.8.20 2 1191 / 142
- <연설요약> 김광식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/98.8.20 2 1191 / 142
- 가족들도 수배생활, 회사측 합의불이행·노조파괴에 혈안/98.9.16 1 1210 / 188
- <기자회견문> 투쟁을 마무리하며(김광식 노조위원장)/98.9.16 3 1210 / 190
- <만화사랑방> 현대차 노사합의 휴지조각 /98.9.18 1 1212 / 193

15. 이주노동자(외국인노동자)

- 외국인노동자협회의 토론회 - 이주노동자문제, 아시아 주요 의제로/98.7.2 2 1158/ 61
- <새로 나온 책> 『세계이주노동운동 관련 최근자료 번역집』/98.9.16 1 1210 / 188
- <해설>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기준법 적용의 의미와 남은 과제/98.10.16 2 1229 / 232
- 출입국관리소 가혹행위 발뺌 - 중국동포 폭행 후 몰래 출국시켜/98.11.21 1 1255 / 290

· 이주노동자조약 비준 촉구 - 외국인노동자 캠페인 벌여/98.12.11 2 1269 / 326

### 16. 빈민·노점상

· 죽음으로 내모는 노점단속, 장애인 노점 중태/98.9.26 2 1218 / 207  
· 샵터에서 내몰리는 영세민들/98.12.11 1 1269 / 325

### 17. 여성

· 여연, 유엔에 민간보고서 제출 - “신 가부장제로 여성차별”/98.7.1 1 1157 / 57  
· ‘무력분쟁과 성폭력’ 주제로 아시아여성인권 세미나 개막/98.9.17 1 1211 / 191

### 18. 장애인

· 죽음으로 내모는 노점단속, 장애인 노점 중태/98.9.26 2 1218 / 207  
· 장애인단체 등, 장애인직업재활법 제정 촉구/98.12.16 1 1272 / 332  
· 조선일보 장애인 비하 - 장애인단체, 공식사과 촉구/98.12.23 2 1277 / 345

#### <에바다농아원>

· <국감스케치> 보건복지부 - 이성재 의원을 에바다로/98.11.11 1 1247 / 274  
· 에바다 사태 2년 경과 - 비리재단 버티고...농아원생들 지치고/98.11.26 1 1258 / 297  
· 비장애 어린이 농아원 수용 - 에바다, 가족 인도 요청 거부/98.12.15 1 1271 / 330

### 19. 동성애자

· 동성애 서적도 이적표현물?/98.11.27 1 1259 / 299

### 20. 대학

· 서울대 학생회, 김민수 교수 재임용 촉구/98.8.22 2 1193 / 146  
· 무너지는 대학 자치 - 언론·표현활동 등 기본권조차 못 지켜/98.10.2 2 1222 / 218  
· 대학 구조조정 반대 접거농성 잇따라 /98.10.29 2 1238 / 252

#### <한총련/한총련 수배자>

· 강위원 5기 한총련 의장, 한총련 탄압 중단 요구 단식 중 쓰러져/98.7.16 2 1168 / 82  
· 검·경 이래도 되나 - 대학생 상대, ‘범죄자 만들기’ 혈안/98.7.31 2 1178 / 107  
· “수배조치 해제하라”, 한총련 수배자 7명 조계사 농성 돌입/98.8.11 2 1185 / 126  
· “헌정 파괴엔 은전, 민주화투쟁은 찬밥”, 정치수배자 기자회견/98.8.19 2 1190 / 140  
· 최근 대학생 8백여 명 연행 - 수해복구활동 중에도 잡혀가/98.8.28 1 1197 / 155  
· 대학생 집회참가 원천봉쇄, 농민대회장 불법연행 뒤 모두 훈방/98.9.17 1 1211 / 191  
· 수배·실직자 딱한 처지, 명동성당 “농성자 철수” 요구/98.9.24 1 1216 / 202  
· 인권공대위, 국보법 철폐 백만인서명운동 돌입/98.9.25 1 1217 / 204  
· ‘광기 서린’ 대학생 탄압, 대량구속·수배 계속/98.9.29 2 1219 / 209  
· 시대의 낙인 ‘한총련 대의원’, 낮에는 학생회 활동, 밤에는 잠자리 걱정/98.10.1 2 1221/ 216  
· 무너지는 대학 자치 - 언론·표현활동 등 기본권조차 못 지켜/98.10.2 2 1222 / 218  
· 진보네트워크 접속 이상 - 한총련 홈페이지 문제삼아 차단/98.10.9 2 1224 / 222  
· 한총련 이적규정 철폐 요구 -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/98.10.16 2 1229 / 232  
· 수배자가족협의회 결성 - 정치수배 해제 촉구/98.10.17 1 1230 / 233  
· 공안당국 다시 기지개 - 단국대·인제대생 대거 연행/98.11.3 1 1241 / 261  
· 구성도 안된 99년 한총련에 ‘이적’ 낙인/98.11.19 1 1253 / 286  
· 명동성당, 한총련 농성장 강제철거/98.11.28 1 1260 / 301

· 한총련 연행사태 잇따라/98.12.24 1 1278 / 346

## 21. 청소년

- 보충수업 일방결정 반발 - 대전 교사들, 관료행정 비난/98.7.8 1 1162 / 68
- <논문> 「학생 인권 침해에 관한 연구-고등학교를 중심으로」/98.7.29 1 1176 / 102
- 청소년 인권 다룬 고딩영화제, “우리이야기, 우리가 해요”/98.8.26 1 1195 / 150
- <기자수첩> 영파여중 파문 - ‘너희가 중당을 아느냐’/98.10.10 2 1225 / 224

### <학생인권선언>

- 느닷없는 ‘학생인권선언’ - 실효성 의문, 전시행정 우려/98.10.20 1 1231 / 236
- 학생인권선언 제대로! - 교육부 비판·제안 잇따라/98.10.30 2 1239 / 254
- <만화사랑방> 학생인권선언/98.11.5 1 1243 / 265
- 중고등학생 인권선언 제정 - 차별배제·결사의 자유 등 천명/98.11.5 1 1243 / 265
- 학생인권선언, 시작만 거창·용두사미 우려/98.11.24 1 1256 / 292
- 교육운동연대회의, 학생인권선언 시안 비판/98.11.28 1 1260 / 301

## 22. 환경

- 고리핵발전소 노동자 사망, 방사능 피폭 여부 우려/98.8.5 1 1181 / 116

## 23. 평화

### <대인지뢰>

- 대인지뢰 위험 적신호, 폭우 속 지뢰 유실·주민 피해 발생/98.8.12 1 1186 / 128
- <만화사랑방> 수해와 대인지뢰/98.8.14 2 1188 / 133
- 백령도 주민들의 공포 - 대인지뢰 발...잃어버린 삶터/98.10.30 1 1239 / 253

### <21세기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 국제학술대회>

- 동아시아 냉전과 민중/98.8.26 2 1195 / 151
- 냉전체제 폭력과 동아시아 여성/98.8.27 2·3 1196 / 153
- 냉전체제하의 양민학살의 실상/98.8.28 2·3 1197 / 156

## 24. 북한

### <탈북자>

- ‘국제미아’된 탈북자 - 김용화 씨, 생사기रो에 놓여/98.7.15 1 1167 / 79
- 탈북자 갈 곳 어디에 - 김용화 씨 강제송환 여부 주목/98.8.5 2 1181 / 116

## 25. 주한미군

- 미군기지 환경오염 공청회 - “미국 책임보상·원상회복” 촉구/98.7.2 2 1158 / 61
- 미군기지 환경오염 대책 촉구 - 후손에 물려줄 땅, 미군이 파괴/98.7.9 2 1163 / 71
- 대구시민 “몬 살아”, 미군비행장 이전 촉구/98.8.1 1 1179 / 111
- 단결된 시민의지의 승리 - 미군 위조지폐범 실행선고/98.10.24 2 1235 / 246
- “억울하게 죽어간 딸들이여” - 주한미군범죄 희생자 추모제/98.10.28 2 1237 / 250
- “클린턴 공식 사과하라” - 방위비분담금 축소 촉구/98.11.21 1 1255 / 290
- 금요시위 2백회 맞아 - SOFA 등 여전히 현안으로/98.12.19 1 1275 / 340

<한미행정협정>

- 한미행정협정, 범죄자 보호협정? - 한국인 여성 살해한 미군 처벌 어려워/98.9.4 2 1202 / 171
- 금요시위 2백회 맞아 - SOFA 등 여전히 현안으로/98.12.19 1 1275 / 340

26. 국제인권소식

- 국제형사재판소 논쟁 치열, 로마회의 오는 17일 협약안 채택/98.7.10 2 1164 / 73
- <국제인권소식> 콩고민주공화국 - 카빌라 정부, 계산된 석방/98.7.11 2 1165 / 75
- <국제인권소식> 버마 - 외국인 인권활동가 18명 구금/98.8.13 2 1187 / 131
- 미얀마, 인권활동가 국외추방/98.8.20 2 1191 / 142
-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 아태지역 아동미술경연대회/98.10.8 1 1223 / 219
- 말레이시아, '보안법' 철폐 시위 - 인권운동가 등 1백여 명 연행/98.10.21 1 1232 / 239

<동티모르>

- 동티모르 인권상황 악화 - 재판없는 처형·실종 잇따라/98.12.12 1 1270 / 328

<유엔인권위원회>

- 여연, 유엔에 민간보고서 제출/98.7.1 1 1157 / 57
- <요약> 국보법 7조 사건 유엔인권이사회 결정문/98.12.25 2 1279 / 349

27. 민간단체

<국제인권단체>

- 국제앰네스티, 파업 진압 자제 촉구/98.7.15 2 1167 / 80

- 대만인권촉진회, 조건없는 양심수 석방 촉구/98.7.21 1 1170 / 89
- 비난받는 '파업 탄압' - 국제앰네스티, 노동권 보장 촉구/98.7.24 1 1173 / 95
- "김대중, 과거 답습" - 국제앰네스티, 공안탄압 중단 촉구/98.7.25 1 1174 / 97
-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, 사면 요청 - 9월중 김대중 대통령 면담/98.8.19 1 1190 / 139
-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, 인권캠프 - '인권의 현재적 의미를 찾아'/98.8.25 1 1194 / 147
-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방한, 한국 인권상황 개선 촉구할 듯/98.9.9 1 1205 / 179
- 국제앰네스티 "국보법 유감" 표명/98.9.10 2 1206 / 180
- 피에르 싸네 앰네스티 사무총장, 준법서약 폐지 등 촉구/98.9.11 1 1207 / 181
- <국제앰네스티 권고사항> 한국 인권상황 오히려 악화/98.9.12 2 1208 / 184
- AI, 법무부 인권법 비판 - "국제기준 미달·약체 인권위 예상"/98.10.24 1 1235 / 245
- '인권위 독립성' 거듭 강조 - 앰네스티, 법무부 수정안 비판/98.12.5 1 1265 / 315

<대한변호사협회>

- 변협, 97년 인권보고서 발간/98.12.24 2 1278 / 347

<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>

- 양지마을, 형사고발키로 - 민변 등 인권단체, 1차 조사결과 발표/98.7.23 2 1172 / 94
- "노재중은 특수강도" - 민변 등 인권 3단체, 양지마을 고발/98.8.8 1 1184 / 123
- 민변, 긴급감청제 폐지 요구 - 통신보호법 개정 의견 제출/98.12.4 1 1264 / 313

<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>

- 시장주의적 구조조정 반대, 민교협·학단협 성명/98.7.16 2 1168 / 82
- "자유민주주의부터 검토하자" - 한국인권 과제 토론 심포지엄/98.11.24 2 1256 / 231

<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>

- 민가협, '양심수 석방' 캠페인 돌입 - 3일간 하루 감옥체험도/98.7.21 2 1170 / 90
- 목요집회, 양심수 편지 소개 - 그리움 깊어도 양심은 지키고파/98.7.31 2 1178 / 107
- 양심수 석방을 위한 캠페인 '98 양심수가 없는 나라'/98.8.5 2 1181 / 117
- 소망한다 '양심수가 없는 나라' - '98 양심수 석방을 위한 캠페인'/98.8.7 2 1183 / 121
- '감옥체험' 동참한 각계 인사들/98.8.8 2 1184 / 124
- <하루감옥 체험기> 공시령 공시령 - 배유정(방송인)/98.8.11 3 1185 / 127
- 보랏빛 수건, 다시 거리로 - 미석방 양심수 가족들, 배신감 표출/98.8.21 2 1192 / 144
- 민가협 집계, 양심수 4백2명 가운데 국보법 구속자가 2/3 차지/98.9.1 2 1199 / 164

<유가협·추모단체연대회의> → <과거청산>

<인권운동사랑방/인권영화제>

- 양지마을, 형사고발키로 - 민변 등 인권단체, 1차 조사결과 발표/98.7.23 2 1172 / 94
- 지난해 수원·안양 인권영화제 집행위, 음비법 위반 벌금형/98.7.28 1 1175 / 99
- "노재중은 특수강도" - 민변 등 인권 3단체, 양지마을 고발/98.8.8 1 1184 / 123
- 제3회 인권영화제 12월 5일 개막, 실업 문제 등 특별기획전 마련/98.9.24 2 1216 / 203
- '야만을 넘어 인권의 세계로' - 제3회 인권영화제 12월 5일 개막/98.11.4 1 1242 / 263
- 인권영화제 성황리 개막 - <칠레전투> 등 만원사례/98.12.8 2 1266 / 318
- 인권영화제 또 '사전심의' 시비/98.12.10 2 1268 / 323
- 인권영화제 지역 상영일정/98.12.10 2 1268 / 323

<전북 평화와 연대>

- "양심수 석방·국보법 철폐" 촉구 집회/98.8.13 1 1187 / 130
- 98년 전북지역 인권 10대 뉴스 - <평화와 인권> 선정/98.12.23 2 1277 / 345

<진보네트워크>

- 소통과 연대의 미래로 - 진보네트워크 추진위 발족/98.7.2 1 1158 / 60
- 진보네트워크센터, 시범서비스 실시/98.8.19 2 1190 / 140
- 진보네트워크 둘러보기/98.11.17 2 1251 / 283

<천주교인권위원회>

- 양심수 석방, 개혁의 출발 - 천주교, 양심수 석방운동 본격 시동/98.7.7 1 1161 / 66
- 양지마을, 형사고발키로 - 민변 등 인권단체, 1차 조사결과 발표/98.7.23 2 1172 / 94
- "노재중은 특수강도" - 민변 등 인권 3단체, 양지마을 고발/98.8.8 1 1184 / 123

<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>

- 한총련 이적규정 철폐 요구 -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/98.10.16 2 1229 / 232

<한국여성단체연합>

- 여연, 유엔에 민간보고서 제출 - "신 가부장제로 여성차별"/98.7.1 1 1157 / 57

<한국인권단체협의회>

- 14개 종교·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 "8·15사면, 인권의지 시금석"/98.7.14 1 1166 / 76
- 인권단체, 법무부에 건의문 - '청송 개방 전시용' 비판/98.10.8 1 1223 / 219
- 총기사용 이제 그만 - 인권협, 경찰청 앞 시위/98.10.23 1 1234 / 243
- 국회 앞에서 국보법 장례식 - 35개 국제인권단체 연대성명 보내/98.12.2 1 1262 / 309

28. 고정란

<사랑방 만평>

· 이름만 바뀐 전향제도/98.7.3 1 1159	/ 62
· 참혹한 양지마을/98.7.18 1 1169	/ 86
· 다양한 노동자 탄압/98.7.24 2 1173	/ 96
· 이중적인 양심수 정책/98.7.31 1 1178	/ 106
· 준법서약제/98.8.7 3 1183	/ 122
· 수해와 대인지뢰/98.8.14 2 1188	/ 133
· DJ의 양심/98.8.21 2 1192	/ 144
· 문규현 신부 구속사건/98.9.4 1 1202	/ 170
· 김대중 정권과 노동현장 경찰력 투입/98.9.11 1 1207	/ 181
· 현대차 노사합의 휴지조각 /98.9.18 1 1212	/ 193
· 손가락 절단사건/98.9.25 1 1217	/ 204
· 학생인권선언/98.11.5 1 1243	/ 265
· 유가협 농성/98.11.12 1 1248	/ 276
· DJ와 양심수/98.12.24 2 1278	/ 347
· 만화로 되돌아본 98년 한국의 인권/98.12.29 5 1280	/ 354

<월목차>

· 98년 6월분 총목차(1137호-1156호)/98.7.1 2·3 1157	/58-59
· 98년 7월분 총목차(1157호-1178호)/98.8.1 2·3 1179	/112-113
· 98년 8월분 총목차(1179호-1198호)/98.8.29 2·3 1198	/159-160
· 98년 9월분 총목차(1199호-1220호)/98.9.30 2·3 1220	/211-212
· 98년 10월분 총목차(1221-1240호)/98.10.31 2·3 1240	/256-257
· 98년 11월분 총목차(1241호-1260호)/98.11.28 2·3 1260	/302-303

<인권간행물>

· 「학생 인권 침해에 관한 연구-고등학교를 중심으로」/98.7.29 1 1176	/ 102
· 「역감시의 권리로써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재구성」/98.8.19 2 1190	/ 140
· 「세계이주노동운동 관련 최근자료 번역집」(외노협 펴냄)/98.9.16 1 1210	/ 188
· 「불법도청 '합법' 감청」/98.10.28 1 1237	/ 249
· 「다원건설(구 적준) 철거범죄 보고서」/98.11.12 2 1248	/ 277
· 「철거민이 본 철거-서울시 철거민 운동사」/98.11.20 1 1254	/ 288

<인권시평>

· 원칙과 개념에 대해 -오창익(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)/98.7.14 3 1166	/ 78
· '양지마을' 그 아름다운 이름을 위해 - 박래군/98.7.28 3 1175	/ 101
· <특별기고> "양심수에게 사면은 없다" - 김도형 변호사/98.8.25 3 1194	/ 149
· 과외가 필요하다 - 류은숙(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장)/98.9.8 3 1204	/ 176
· 사회안전망 구축에 나서자 - 이태곤(월간 『함께걸음』 편집부장)/98.9.22 3 1214	/ 199
· 윤금이 씨를 생각하며 -정유진(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사무국장)/98.10.8 2 1223	/ 220
· 그거 또 외우는 건가요? - 류은숙/98.10.20 3 1231	/ 238
· 인권선언과 장애인의 최저 삶 - 이태곤/98.11.10 3 1246	/ 273
· 국가보안법 50년 오명을 벗자 - 정유진/98.11.24 3 1256	/ 294
· <특별기고> 세계인권선언 50돌을 맞아① 인권보장의 주춧돌(장호순 교수)/98.12.10 2 1268	/ 323
· <특별기고> 세계인권선언 50돌을 맞아② 세계인권선언 반세기(이석태 변호사)/98.12.10 3 1268	/ 324
· 여기는 전투지대, 평화의 교실을 꿈꾸며 - 류은숙/98.12.22 3 1276	/ 343

<인권영화>

· 「우리들의 사계」(노동자뉴스제작단 제작)/98.8.22 2 1193	/ 146
---	-------

<주간인권흐름>

· 6월 29일 - 7월 5일/98.7.7 2 1161	/ 67
· 7월 6일 - 7월 12일/98.7.14 2 1166	/ 77
· 7월 13일 - 7월 19일/98.7.21 2 1170	/ 90
· 7월 20일 - 7월 26일/98.7.28 2 1175	/ 100
· 7월 27일 - 8월 2일/98.8.4 2 1180	/ 115
· 8월 3일 - 8월 9일/98.8.11 2 1185	/ 126
· 8월 10일 - 8월 16일/98.8.18 2 1189	/ 138
· 8월 17일 - 8월 23일/98.8.25 2 1194	/ 148
· 8월 24일 - 8월 30일/98.9.1 2 1199	/ 164
· 8월 31일 - 9월 6일/98.9.8 2 1204	/ 175
· 9월 7일 - 9월 13일/98.9.15 2 1209	/ 186
· 9월 14일 - 9월 20일/98.9.22 2 1214	/ 198
· 9월 21일 - 9월 27일/98.9.29 2 1219	/ 209
· 9월 28일 - 10월 11일/98.10.13 2 1226	/ 226
· 10월 12일 - 10월 18일/98.10.20 2 1231	/ 237
· 10월 19일 - 10월 25일/98.10.27 2 1236	/ 248
· 10월 26일 - 10월 31일/98.11.3 2 1241	/ 262
· 11월 2일 - 11월 8일/98.11.10 2 1246	/ 272
· 11월 9일 - 11월 15일/98.11.17 2 1251	/ 283
· 11월 16일 - 11월 22일/98.11.24 2 1256	/ 293
· 11월 23일 - 11월 29일/98.12.1 2 1261	/ 308
· 11월 30일 - 12월 6일/98.12.8 2 1266	/ 318
· 12월 7일 - 12월 13일/98.12.15 2 1271	/ 331
· 12월 14일 - 12월 20일/98.12.22 2 1276	/ 342

<특집: 세계인권선언, 그 의미와 현재>

· ① 세계인권선언의 탄생/98.11.18 2 1252	/ 285
· ② 세계인권선언의 정신: 전문(前文)/98.11.19 2 1253	/ 287
· ③ 제 1·2조 - 차별은 안돼!/98.11.20 2 1254	/ 289
· ④ 제 3·4조 - 노예는 없다/98.11.21 2 1255!	/ 291
· ⑤ 제 5조 - 고문 금지!/98.11.25 2 1257	/ 296
· ⑥ 제 6·7·8조 - 법 앞에 평등/98.11.26 2 1258	/ 298
· ⑦ 제 9·10·11조 - 제멋대로 잡아가지 마라!/98.11.27 2 1259	/ 300
· <내가 본 인권선언> “인권선언은 태평양을 건너오지 못했다”(김삼석)/98.12.2 2 1262/ 310	
· ⑧ 제 12·13조 - “나만의 세계가 있어요”/98.12.2 2 1262	/ 310
· ⑨ 제 14·15조 - “난민에게 피난처를!”/98.12.3 2 1263	/ 312
· ⑩ 제 16·17조 - “평등한 결혼의 권리·재산권”/98.12.4 2 1264	/ 314
· <내가 본 인권선언> 두 가지 재산권과 국가의 의무(김종서)/98.12.4 2 1264	/ 314
· ⑪ 제 18·19조 - “생각과 표현은 자유다”/98.12.5 2 1265	/ 316
· <내가 본 인권선언> 뉴미디어의 등장과 표현의 자유(김영식)/98.12.5 2 1265	/ 316
· ⑫ 제 20·21조 - “정치는 우리 의사대로”/98.12.8 3 1266	/ 319
· ⑬ 제 22조 - “사회적 안전망은 필수!”/98.12.9 2 1267	/ 321
· <내가 본 인권선언> 1998년 ‘시장’ 논리에 압살된 ‘노동권’(박성인)/98.12.11 3 1269/ 327	
· ⑭ 제 23·24조 - “일하는 것은 권리에요!”/98.12.11 3 1269	/ 327
· ⑮ 제 25조 - 인간답게 살 권리!/98.12.12 2 1270	/ 329
· <내가 본 인권선언> 생명이 갖는 권리(김중렬)/98.12.12 2 1270	/ 329
· ⑯ 제 26조 - 교육, 인간다운 삶의 기초!/98.12.16 2 1272	/ 333
· <내가 본 인권선언> 지적재산권과 문화적 권리(오병일)/98.12.17 2 1273	/ 336
· ⑰ 제 27조 - 문화·과학, 함께 즐겨요!/98.12.17 2 1273	/ 336



- ㉔ 제 28·29·30조 - 소중한 권리, 가치있는 의무/98.12.18 2 1274 / 339
- '세계인권선언...'을 마치며 - 선언 50주년, 산적한 과제/98.12.22 2 1276 / 342

## 29. 기타

- 양심선언자 보호법 추진/98.7.11 2 1165 / 75
- 계훈제 선생 돕기 모임/98.9.23 2 1215 / 201
- 전후보상·차별철폐 숙원 - 재일동포, 기대·우려 교차/98.10.9 1 1224 / 221
- 국회인권포럼, '에이즈감염인 인권' 토론회/98.10.29 1 1238 / 251
- 대법원 인권보호원칙 파기 - 치과 의사 사건 판결, '검사 입증원칙' 무시/98.11.17 1 1251/ 282
- 명동성당, 농성장 강제철거/98.11.28 1 1260 / 301
- 병역면제자 죄인취급 - 합동수사본부 밤샘조사까지/98.12.11 2 1269 / 326
- "반인권적 이라크 공습 중단하라" - 국내 민간단체 비난 성명/98.12.18 1 1274 / 338
- 인간복제 규제 촉구 - 환경·사회·종교단체 시위/98.12.19 1 1275 / 340
- "공습지지는 학살 방조", 이라크 공습 규탄대회/98.12.25 1 1279 / 348

### <세계인권선언 50주년>

-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 아태지역 아동미술경연대회/98.10.8 1 1223 / 219
- 세계인권선언 50돌 기념 - 영화제·심포지엄 등 행사 다채/98.12.1 2 1261 / 308
- '세계인권선언'과의 만남 -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 토론회/98.12.9 1 1267 / 320
- '인권의 날' 요구 봇물 - 민주노총 등 각계성명/98.12.11 2 1269 / 326

### <신자유주의와 IMF/서울국제민중회의>

- 경제위기, 인권의 위기-'IMF, 인권과 교회' 국제포럼 열려/98.8.25 2 1194 / 148
- "IMF에 도전하는 민중", 서울국제민중회의 9일 개막/98.9.11 2 1207 / 182

- <해외단체 소개> '가난한자들의 모임'(태국)/98.9.11 2 1207 / 182
- "파괴에 맞서 연대로", 98 서울국제민중회의 폐막/98.9.12 1 1208 / 183
- <주요발표> 98 서울국제민중회의 ① 미국·프랑스 노동자/98.9.15 3 1209 / 187
- <주요발표> 98 서울국제민중회의 ② 사빠띠스따/98.9.16 2 1210 / 189
- <주요발표> 98 서울국제민중회의 ③ 민영화라는 전염병(페르디난트)/98.9.17 2 1211 / 192
- <인터뷰> 푸스파 인사니(인도네시아 학생운동가)/98.9.19 1 1213 / 195
- IMF 1년, 고통받는 민중 결집 - '98 민중대회 여의도에서 개최/98.11.7 1 1245 / 269
- IMF 1년, 돌아본 우리모습/98.12.3 1 1263 / 311

---

## <인권하루소식> 합본 11

---

피넨날 · 99년 1월  
피넨이 · 서준식  
피넨곳 · 인권운동사랑방

---

주소 110-522 서울시 종로구 명륜2가 8-29  
대표전화 741-5363 팩스 741-5364  
통신 ID rights(천리안, 하이텔) 인권사랑(나우누리)  
인터넷 접속주소 <http://www.chollian.net/~rights/>

값 1만원